Economy p/5

해외서 카드 사용액 최대

metro
메트로 2015년 3월 4일 수요일

Sports p/20

류현진 "등 통증 이상무"

왕언니가 돌아왔다

여성가족부 공동기획 〈가정이 있는 직장〉 ② CJ그룹 p/11

경력단절 여성 '리턴십' 운영… 360여명 재취업 활약

강예원, '진짜사나이' 최고 만선녀 p/17

김영란법 통과

기자 포함 4백만명 "꼼짝마" p/2

쉐보레 런칭 4년 "최대120만원 지원" p/10

김영란법 국회 통과

2월국회 마지막날인 3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입법예고 된 지 2년 반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수정안이 전날 여야 협상과정에서 다시 수정(공직자의 가족을 배우자로 한정)된 결과로 적용대상이 대폭 줄어들기는 했지만 원안과 달리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적용대상에 포함되면서 부패에 찌든 우리사회에 일대 대풍이 불어 닥칠 전망이다. 다만 법안의 부작용이나 위헌 시비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특히 법적용의 칼자루를 쥔 검찰의 공정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관대한 검찰인 만큼 검찰은 김영란법의 무풍지대로 남을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찬성 226표
기권 17표
반대 4표(권성동, 김용남, 김종훈, 안홍준)

2월국회 마지막날인 3일 오후 국회는 약속대로 본회의를 열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스폰서검사·벤츠여검사 떨까

검찰, 검사 비리 직접 수사 관행에 관련법 무풍지대 우려

김영란법 주요 내용

적용대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이들의 배우자
처벌대상	본인 1회 100만원 초과 금품수수(직무관련성 무관) 형사처벌 본인 1회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직무 관련성 有) 과태료 본인 1회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직무 관련성 無) 동일인 [illegible] 연간 300만원 [illegible] 배우자가 1회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직무 관련성 有) 과태료 배우자가 1회 100만원 초과 금품수수(직무 관련성 有) 형사처벌
적용시기	법 공포 후 1년 6개월 후

◆ 김영란법 발단은 스폰서 검사·벤츠 여검사 사건

김영란법은 공교롭게도 태생부터 검찰과 뗄 수 없는 인연으로 묶였다. 검찰의 부패를 난죄할 수 없는 우리사회의 현실에 대한 국민의 공분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2010년 4월 부산의 한 건설업자가 57명의 전현직 검사에게 향응과 성상납을 했다는 방송보도의 파장은 컸다. '스폰서 검사'라는 신조어를 낳을 정도였다. 같은 해 9월에는 여검사가 내연 관계인 변호사로부터 벤츠와 명품가방을 선물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검사에게는 '벤츠 여검사'라는 딱지가 붙었다. 국민들은 이들이 당연히 처벌 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금품수수는 인정되지만 직무 연관성도 대가성도 없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후 국민의 공분에 기대어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법안이 바로 김영란법이다.

◆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김영란법 무풍지대 우려

김영란법은 공포 후 1년 반 뒤 효력을 갖는다. 발효 후 김영란법은 제2의 스폰서 검사와 벤츠 여검사를 단죄할 수 있을까.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나서 던 낸 국민의 낭연한 기대가 박신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검사의 비리에 대해 스스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에 대한 특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김영란법은 검찰에 대해서만큼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관행을 살펴보면 문제의 심각성은 쉽게 확인된다.

◆ 김영란법 논란 와중에도 검찰 '제식구 감싸기' 계속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김영란법이 논의되는 와중에도 변화는 없었다. 지난달 사채업자 수사무마 청탁 사건에서 검찰은 사채업자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판사를 구속했지만 연루된 현직검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검사는 구속된 판사의 대학동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생으로 수사무마 청탁의 대상이란 의혹이 제기된 상태였다. 두 사람 간 사건에 대한 상의가 있었다는 제보자의 진술까지 나왔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거셌다. 현직 지검장의 일탈로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대한 처리를 비롯해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사례는 끝이 없다.

◆ 검찰 출신 정치인에 관대한 검찰 -우려 증폭

검찰은 오지랖까지 넓다. '제식구 감싸기'에서 전현직을 가리지 않는다. 최근 박희태 전 국회의장 성추행 사건에서는 지나친 봐주기로 망신까지 당했다. 검찰은 고검장을 거쳐 법무장관까지 지낸 박 전 의장을 골프 캐디 성추행 혐의로 기소하면서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는데 그쳤다. 검찰은 비슷한 사건의 경우 보통 징역 10월에서 1년가량을 구형해 왔다. 담당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에 아랑곳하지 않고 박 전 의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보란 듯이 검찰에 면박을 줬다.

◆ 최근 5년간 검찰의 자기식구 기소는 단 1%

스폰서 검사 사건이 터진 2010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약 5년 간 검찰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는 2424건이었지만 기소는 단 25건(1.03%)에 그쳤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법무부가 서기호 전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직무관련 검찰청 소속 공무원범죄 현황 및 처분 현황'에 나타난 내용이다. 2012년 가장 기소 건수가 많았지만 여기서도 269건 중 8건(3%)에 불과했다. 2012년 평균 기소율은 36.8%였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에는 피살된 서울 강서구 재력가로부터 2000여만원을 받은 당시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검사 사건도 있었다. '돈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특히 이 기간 검찰이 수사도 하지 않고 '각하'로 종결한 사건은 2171건으로 전체 사건의 89.6%에 달했다.

◆ "검사 비리는 검찰 직접 수사 관행… 봐주기 막을 길 없어"

검사 출신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을 지낸 금태섭 변호사는 메트로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예전에는 법무부 훈령에 의해 법무부 소속 공무원은 경찰이 수사를 하지 못하게 됐던 시절이 있었다. 음주운전만 걸려도 경찰은 손을 쓸 수 없었다"며 "이제는 폐지됐지만 여전도 검사가 비리를 저지르면 검찰에 직접 수사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자기 구성원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검찰이 직접 자기 구성원을 수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수사지휘권도 함께 가진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제도다. 검찰의 수사 지휘권은 경찰의 인권침해를 감시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검찰이 검찰 조직원을 직접 수사하는 경우 '지휘' 자체가 사라지고 오직 '수사' 행위만이 남게 된다. 인권침해 방지는 물론이고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도 막을 길이 없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홍용표 후보자 부인 위장전입

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과거 아파트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통일부에 따르면 홍 후보자의 부인 염모 씨는 지난 1999년 4월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소재 한 아파트로 혼자 전입을 했다.

염씨가 전입한 아파트는 서승환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집이다. 서 장관의 부인은 홍 후보자의 누나로 염씨는 남편인 홍 후보자의 누나 집으로 잠깐 전입을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홍 후보자가 부모가 살고 있던 분당 근처로 이사하려는 생각에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당시 분양은 받지 못했고 홍 후보자는 이듬해 분당에 아파트를 구입했다"면서 "(위장 전입이)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홍 후보자는 2000년 11월 분당구 정자동의 한 아파트를 구입해 부인과 함께 전입했다.

홍 후보자는 이날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그는 통일부를 통해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었으며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정윤아기자 yoona18

김재원 1위 지난해 후원금 권은희 꼴찌

지난해 후원금 모금에서 친박(친박근혜) 핵심 중 한명이자 청와대 정무특보에 임명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1위를 차지했다. 꼴찌는 지난해 공천 파동 속에 국회에 입성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록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2014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모금액 현황에 따르면 김 의원은 3억1066만원을 모금했다. 김 의원 다음으로 박명재(3억803만원·새누리당), 심상정(3억423만원·정의당), 김용태(3억229만원·새누리당), 강기정(3억64만원·새정치민주연합), 서상기(3억21만원·새누리당), 정갑윤(3억20만원·새누리당), 이철우(3억원·새누리당), 김태호(3억원·새누리당), 김무성(2억9995만원·새누리당) 순이었다.

권 의원은 1705만원을 모금했다. 권 의원 다음으로 문대성(2953만원·새누리당), 박윤옥(3875만원·새누리당), 진영(3969만원·새누리당), 김세연(3935만원·새누리당), 심재권(3965만원·새정치연합), 유대운(4020만원·새정치연합) 의원 등의 순으로 모금액이 적었다.

지난해 국회의원 전체 후원금 규모는 504억1172만원으로 2013년 후원금 총액인 381억9186만원과 비교하면 122억여원 늘어났다. 그러나 지난해는 1인당 모금한도가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난 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가 폭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모두 277억525만원, 새정치연합 211억9781만원, 정의당 7억7515만원, 옛 통합진보당 6억1150만원, 무소속 1억1899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송병형기자

아빠 무사히 다녀올께 3일 오후 서울 송파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린 아크부대 3진 환송행사 에서 한 부대원이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 아크부대는 국군 창설이래 최초의 군사훈련 파병부대로, UAE군 특수전부대에 대한 군사훈련과 유사시 재외국민보호 임무를 수행한다. /연합뉴스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불발

법사위 제동에 2월 국회 처리 무산
어린이집 CCTV 설치 법안도 무산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위원장 이상민)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돼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법사위는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해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소위로 넘겨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처리를 보류하고 소위로 넘겼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4월 국회 처리로 넘어가게 됐다. 법사위 관계자는 "법사위는 여야간 합의처리를 관행으로 해온 만큼 한 사람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소위로 넘겨왔다"고 설명했으나, 법사위 발목잡기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한편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유무선 인터넷 연결에 사용하는 '네트워크 카메라'(웹카메라·IP카메라) 설치 조항이 삭제된 채로 수정 의결했다. 이는 네트워크 카메라가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 보육교사의 인권침해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여야 법사위원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김 의원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이 법안의 법안소위 회부를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이려 했으나 이 법안이 여야 원내지도부가 전날 2월 임시국회 처리를 합의한 법이라는 점에서 회의를 정회했다. 오후에 속개해 제조율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웹카메라 설치부분만 빼다면 굳이 소위 회부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물러서면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선에서 법안은 가결됐다.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법사위가 정회한 동안 김 의원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법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상 밖으로 부결됐다.

/정윤아기자 yoona@metroseoul.co.kr

朴 세일즈 외교, 쿠웨이트서 성과

2일(현지시간) 중동 4개국 순방의 첫 기착지인 쿠웨이트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 기간 세일즈 외교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쿠웨이트 바얀궁(宮)에서 열린 한-쿠웨이트 비즈니스포럼에서 우리 기업과 쿠웨이트 기업 간의 1대1 상담이 활발하게 이어졌다. 청와대는 이날 한국의 중소·중견기업 28개사가 모두 12건의 실질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3500만 달러 규모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쿠웨이트 대형 쇼핑몰 내에 10만 달러 규모 키즈카페 조성과 관련한 계약 체결이 이뤄졌다"며 "포럼에서는 또 민간기업 협력이 문화콘텐츠·기술집약형 협력으로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박 대통령은 "양국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되는 저성장 흐름을 극복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최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에너지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쿠웨이트 경제와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한국 경제에 또다른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제협력 분야에서 ▲쿠웨이트 물류 인프라 조성을 위한 협력 강화 ▲에너지 협력을 단순 수급관계에서 호혜적 협력관계로 업그레이드 ▲공공부문 혁신을 통한 민간투자와 효율적 경제성장 뒷받침 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난 1990년 걸프전 발발에도 한국 기업과 근로자들이 공사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점을 언급, "경제인 여러분이 쌓아온 믿음과 우정이 앞으로 양국의 공동번영과 협력증진을 위한 단단한 기반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정윤아기자

"셔먼 발언이 美 본심, 오바마는 립서비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3일 최근 논란이 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의 한·중·일 과거사 관련 발언에 대해 "본심은 셔먼이 얘기를 했고, (작년 방한 당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강도높게 거론한) 오바마 대통령은 립서비스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외교"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정 전 장관은 셔먼 차관의 발언이 어떤 개인이나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미국 국무부의 해명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방미를 앞두고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일본의 양보도 얻어내고 한·미·일 반중(反中)동일전선을 확실하게 구축하자는 계산으로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정 전 장관은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이 국회에 출석해 "미국에서 과거에 밝혀온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는 것을 1차적으로 확인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미국에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이런 식으로 흔들면 안 된다는 얘기를 우리 정부가 해야 되며 미국 정부뿐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는 중국과 손잡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셔먼 차관은 지난달 27일 카네기국제평화연구소에서 가진 세미나에서 "어떤 정치지도자도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도발은 진전이 아닌 마비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아기자

고양이를 모자처럼 써보세요

metro Moskva

이색 사진전 화제

'세계 고양이의 날'인 지난 1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사진전이 화제다.

메트로 모스크바는 고양이의 날을 축하하기 위한 사진 콘테스트 '주위를 놀라는 고양이'를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콘테스트에는 러시아 각지에서 살고 있는 따뜻한 표정의 고양이 사진이 무려 1500장 넘게 응모됐다. 1등은 '니키타'가 응모한 '살롄'이 차지했다. 주인의 손길에서 우아한 모피 모자로 변신하는 재미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사진이다.

2등을 차지한 '티모샤'(작가 나탈리야)는 하얀 배를 내놓고 주인과 같은 포즈로 잠들어 있는 모습이 천연덕스럽다.

풍성한 턱수염 모양의 '알리시아'(알료나)와 서로 꼭 껴안고 잠이든 쿠자와 아치키트(타티아나)가 3, 4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키스카'(세르게이), '타비와 전공 스티븐'(스타니슬라프), '빅이아'(다리아), '베냐'(아나스타샤), '쿠자-무샤-무르지크카사'(예카테리나), '바톤'(일라) 등의 사진도 눈길을 끌었다.

/엘레세바 모르리오도 기자·정리 이국명기자

김범수 의장 '억만장자 클럽'

포브스 선정 최고 부자에 스냅챗·우버 창업자도 합류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이 카카오톡 흥행에 힘입어 포브스 선정 '억만장자' 클럽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2일(현지시간) 미국 경제경영 전문지 포브스는 자사 홈페이지에 개설한 '2015 신규 억만장자' 코너를 통해 주목할만한 18명의 신흥 세계 부자 명단을 공개했다.

신규 억만장자 1위는 택시 공유 서비스 우버 앱을 만든 트래비스 칼라닉(39)으로, 자신 53억 달러를 기록했다. 2위는 혈액 측정 사업가 엘리자베스 홈즈(31)였으며 김범수 의장(49)은 5위에 올랐다. 포브스는 "김범수의 자산 원천은 모바일 채팅 서비스 '카카오톡'"이라며 "추정 자산이 29억 달러에 달한다(전체 628위)"고 밝혔다.

IT산업 발달에 힘입어 IT 사업가들의 약진도 눈에 띄었다. 스냅챗을 개발한 에반 스피겔(24)과 바비 머피(26)는 자산 15억 달러로 10위에 올랐다. 스피겔은 최연소 억만장자 명예도 차지했다. 마인크래프트 개발자 마르쿠스 페르손(36)은 자산 13억 달러로 신흥 부호 12위에 이름을 올렸다.

우버 창업자 트래비스 칼라닉(좌)과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우)

◆ 빌 게이츠 2년 연속 세계 부자

한편 포브스는 2014년 기준 세계 억만장자 명단도 함께 발표했다. 전 세계 억만장자는 1826명으로 집계됐으며 전년보다 290명이 늘어났다. 중국은 신규 억만장자 290명 중 71명을 배출시켜 미국을 제외한 최다 신흥 부자 국가로 떠올랐다.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 회장(51)은 세계 33번째 부자로 기록됐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빌 게이츠 회장(60)은 2년 연속 세계 최고 부자 자리를 굳혔다. 그의 자산은 790억 달러로 전년보다 30억 달러가 늘어났다. 세계 부자 2위는 멕시코 통신재벌 카를로스 슬림(75)으로 770억 달러의 자산을 기록했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워런 버핏(85)은 727억 달러로 부자 3위에 자리매김했다. 마이클 조던(52)은 나이키 상표권으로 10억 달러를 벌어 신규 억만장자 명단에 올랐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자산 113억달러로 113위에 올랐다. 아들 이재용 부회장과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은 각각 자산 72억 달러로 공동 185위를 차지했다.

/정윤화기자 jyh_sun@metroseoul.co.kr

발길 끊이지 않는 넴초프 추모소 러시아 야권 지도자 보리스 넴초프가 총에 맞아 숨진 장소인 모스크바의 크렘린궁 인근에 임시 추모소가 만들어져 2일(현지시간) 헌화하려는 시민들이 줄을 잇고 있다. /AP 연합뉴스

'적반하장' 일본

요미우리·산케이 "한일관계 악화 한국 탓"

일본 우익신문들이 군위안부 문제 등 역사 인식과 관련해 '적반하장'식의 행보를 보이고 있어 반축을 사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사진)를 비롯한 일본 측의 역사왜곡 행보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 없이 한일관계의 악화 원인이 한국 측에 있다는 일방적인 주장만 쏟아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3일자 사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 "역사문제에서 일본 측의 일방적으로 양보를 요구하는 자세는 변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사설은 이어 "일한관계를 개선할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은 유감"이라며 "군위안부 문제에서 일본 측이 구체적인 새 대책을 취하지 않는 한 정상회담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박 정권의 경직된 방침"이 한일관계 악화의 최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산케이 신문도 이날 사설에서 '한일이 보다 성숙한 미래 50년의 동반자가 돼 새 역사를 함께 써나가야 할 때'라는 박 대통령 기념사 내용에 대해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역사 문제에서 일본 측에는 새로운 대응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전제를 두지 말고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 실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이 2일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거론하며 "일한이 함께 대처해야 할 현실의 과제"라며 "국교정상화 50주년에 정상회담의 목표조차 서 있지 않은 '이상 사태'에서 벗어날 때"라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도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한편 아베 정권에 타격을 주고 있는 불법 정치자금 논란의 불똥이 아베 총리 본인에게도 튀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대표로 있는 자민당 야마구치 제4선거구 지부가 2012년 도자이 화학산업으로부터 12만 엔(약 110만 원)의 정치 헌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날 보도했다. 도자이 화학산업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기로 결정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부를 했기 때문에 위법이다. 야마구치 제4선거구 지부는 도쿄 증권거래소 1부에 상장된 화학기업 우베코산으로부터도 보조금 지급 결정 1년 이내에 50만 엔(450만 원)의 기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가 "헌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해당 기업이 국가 보조금을 받았다는 것은 몰랐다"고 해명해 논란은 더욱 커질 조짐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서규원기자 [illegible]

"누구나 한번쯤은 해고 당해봐야 한다"

애나 윈투어 보그 편집장 독설 조언

"누구나 한번쯤은 해고를 당해봐야 한다."(Everyone should get fired once!)

세계적인 패션지 보그 편집장인 애나 윈투어(65·사진)가 패션계 후배들에게 독한 조언을 했다.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실제 모델이자 괴팍한 성격으로 '핵폭탄 윈투어'란 별명을 지닌 그녀는 1988년부터 보그 편집장을 지낸 패션계 거물이다.

2일(현지 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윈투어는 작가 알리스테어 앨범과의 인터뷰에서 "누구나 직장에서 한번은 해고를 당해봐야 한다"면서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것은 중요하며, 완벽한 인생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명사들의 성공 비결을 다룬 책 '승리자: 그들은 어떻게 성공했는가'에 수록됐다.

윈투어 자신도 1975년 패션지 '하퍼스 바자'에서 일할 때 입사 9개월 만에 해고를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실패를 겪더라도 자신감으로 스스로 꾸밀 것을 강조했다.

윈투어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자신감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제로 자신감이 없더라도 그런 척이라도 해야한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준다"고 말했다. 또 "남자들과 조금이라도 대등한 노력을 보이지 않으면 정상에 오를 수 없다"고 후배 여성들에게 조언도 남겼다.

한편 윈투어는 보그 편집장이란 직함 외에 독특한 패션과 언행으로도 유명한 인물이다. 늘 단발머리와 앞머리를 고수하며 어떤 공식석상에서든지 선글라스를 착용해 화제를 몰고 다닌다. 독설과 까칠한 성격은 숱한 에피소드를 낳았지만 곧 사라지는 일 속에서 주전력으로 패션계 대통령으로 군림하고 있다.

/정은혜기자 [illegible]

지난해 해외서 13조원 긁었다

해외여행·직구 증가에 사용액 '역대 최대'… 외국인이 국내서 쓴 카드액도 42%↑

해외 직접구매와 해외 여행 증가로 지난해 나라 밖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내국인이 해외에서 쓴 카드 사용 금액은 122억 달러(약 13조4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1년 새 15.7% 증가한 것으로 5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같은 기간 현금과 카드 사용 등을 통한 해외 여행지급 총액도 234억7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다.

여기에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유류 할증료 급락과 엔저, 저가 항공의 확산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관계자는 "해외여행 등으로 내국인 출국자수가 늘어나면서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장수와 사용금액이 모두 증가했다"며 "여행지급 총액 가운데 카드로 낸 금액은 52%가량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내국인 출국자 수는 1608만명으로 전년보다 123만명 늘어났다.

해외직구 건수와 규모는 전년보다 39.1%와 48.5% 오른 1553만건, 15억4000만 달러 규모로 관세청은 집계했다.

한편 요우커(遊客)로 불리는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비거주자)의 카드사용액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쓴 카드 사용액은 전년보다 41.9% 증가한 115억7000만 달러다. 여기에는 외국인 국내 입국자수와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작년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1420만명으로 이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613만명)이 43%를 차지했다.

한은 관계자는 "중국인 관광객 수는 2013년 대비 41.6% 증가했다"며 "요우커로 인해 지난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용한 카드는 3984만장, 장당 사용금액은 290 달러로 모두 늘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에 발 맞춰 국내 은행들은 요우커를 잡기 위해 활발히 나서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중국 현지의 대형 IT업체와 제휴를 맺어 중국인 관광객들의 결제를 돕는 한편 서울과 제주도의 영업망을 확충하는 등 다각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하나은행은 중국 최대의 온라인 금융결제 서비스업체인 알리페이와 손잡고 이달 안에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명동과 동대문 상가 등에서 자금결제 서비스를 시작한다.

스마트폰에 알리페이의 앱을 설치한 중국인 관광객들은 하나은행과 가맹점 계약을 맺은 식당, 상점, 성형외과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간편하게 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 명동영업부는 간판을 중국어로 바꿀 계획이다.

외환은행은 중국인의 제주도 투자 확대를 겨냥해 지난해부터 제주지점 안에 제주 외국인직접투자(FDI)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는 2명의 중국 현지법인 직원이 파견돼 중국인 투자고객 발굴과 중국 VIP 고객의 자산관리(PB) 역할을 맡고 있다.

국민은행은 급격히 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해 제주도 내 전 영업점에서 올해 안에 사후 면세점 부가가치세 환급 서비스를 시행키로 했다.

요우커는 상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해당 물품의 부가가치세를 즉시 환급받을 수 있다.

/박미란기자 ☎ [illegible]@metroseoul.co.kr

홍기택, "뉴노멀시대 해법은 창조경제"

홍기택 KDB산업은행 회장이 경제 저성장이 지속되는 '뉴노멀' 시대의 해답으로 창조경제와 FTA를 제시했다.

3일 KDB산업은행은 홍 회장이 지난 2일 UAE에서 열린 '글로벌 파이낸셜 마켓 포럼(Global Financial Markets Forum)'에 참석해 이 같이 강조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의 금융트렌드(Financial Trends in a challenging Environment)'라는 주제로 열린 패널 토론에서 "뉴노멀 시대의 해법은 창조경제와 FTA에서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EU, 중국, ASEAN 등 거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인 대한민국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산은은 정부의 창조경제 구현에 부응하고자 창업 벤처기업 지원과 민간과 리스크를 분담하는 투자 또는 투융자 복합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기술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산은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등에 4,791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

아울러 오는 2017년까지 파이오니어 스타트 업(Start-up) 프로그램과 기술신용평가기관(TCB)기반 기술금융 프로그램에 총 1조5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토론은 홍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순방 경제사절단 일원으로 참가하며 이뤄졌다.

이번 순방에서 홍 회장은 중동지역 최대 민간 발전회사인 ACWA 파워 인터내셔널 회장을 만나 현재 산은이 참여하고 있는 10억 달러 규모의 터키 Kirikkale IPP 발전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협의했다.

또한 ACWA 파워가 한국계 기업과 추진 중인 모잠비크, 베트남 발전사업 등의 지원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밖에 카타르 최대은행인 카타르국립은행(QNB) 행장과도 면담을 가질 계획이다.

양 기관은 2022년 카타르월드컵 개최에 따른 인프라 건설 등으로 늘어나는 금융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차관단 대출(Syndicated Loan)과 PF분야에 대한 업무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미란기자

"특허 가치 100% 대출" IBK기업은행은 3일 기술보증기금과 손잡고 '지식재산 1+1 협약보증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특허에 대한 기술가치 평가금액의 10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특허청에 등록된 국내특허권 보유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은행 제공

2월 소비자물가 작년보다 0.5%↑

1999년 이후 최저치

2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연속 0%대를 나타냈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5% 올랐다.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3년 10월 0.9%를 기록한 이후 13개월 연속 1%대를 기록하다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각각 0.8%로 내려왔다.

이 같은 상승률은 0.3%를 기록한 지난 1999년 7월 이래 15년7개월 만에 최저치다.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2.3% 올라 2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9~12월에는 4개월 연속 1%대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에너지제외지수는 1년 전보다 2.3% 상승했다. 이 지표 역시 지난해 9~12월에는 4개월 연속 1%대였다.

/조현정기자 [illegible]

market index <3일>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2001.36 (+4.57)	625.64 (+3.83)	1.99 (-0.01)	1097.80 (-3.50)

삼성물산의 몽골 샹그릴라 현장이 건설안전의 모범사례로 인정 받아 '2014 몽골 건설안전 최우수 기여 현장상'을 수상했다. 첸조릭 노동부장관(왼쪽)이 이상수 샹그릴라 현장소장(오른쪽)에게 상장을 전달하고 있다.

건설안전 최우수 현장상 몽골서 받은 삼성물산

삼성물산이 몽골에서 건설안전 최우수 현장상을 받았다.

삼성물산(대표 최치훈)은 최근 몽골 샹그릴라 현장(Shangri La Hotel Phase 2 PJT)이 몽골 노동부가 주관하는 '2014년 몽골 건설안전 최우수 기여 현장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몽골 건설안전 최우수 기여 현장상은 몽골에서 공사하는 전 현장을 대상으로 국가 안전검사기관의 점검을 통해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 것. 삼성물산은 전체 최고상인 최우수 현장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에는 첸조릭(S. Chinzorig) 몽골 노동부장관과 차관을 포함해 몽골지역 안전담당자 130여 명이 참여했다. 시상식 이후 삼성물산 샹그릴라 현장을 둘러보며 안전관리의 노하우를 공유했다.

첸조릭 장관은 시상식 축사에서 "삼성물산 샹그릴라 현장 안전관리 문화는 전체 몽골현장에 공유돼 몽골 건설수준과 안전문화를 선진 수준으로 높이길 기대한다"며 "삼성물산이 몽골 건설기능인력 양성에도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샹그릴라 현장 이상수 소장은 "앞으로도 우리 현장은 물론, 파트너사와 협력업체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가치로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샹그릴라 프로젝트는 몽골 울란바토르 대사관 밀집지역에 지상 34층 레지던스를 비롯해 24층 오피스, 5층 규모의 극장과 상업시설을 건설하는 복합개발 공사다. 2016년 공사가 완공되면 몽골 최고 높이의 건축물이 될 전망이다. /석상윤기자 [illegible]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신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56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01
2000년 5월 31일 창간 등록번호 서울제행사 가[illegible]

부동산투자 활발 외국 보험사 규제에 손발 묶인 국내 보험사

미·영 부동산 자산 비율 절반 안돼…투자 촉진책 필요 제기

미국·영국 보험사가 수익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도 이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국내 업체는 각종 규제에 발이 묶여있어 부동산 투자 촉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골드만 삭스가 지난해 글로벌 보험사 CFO·CIO 2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향후 전통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이고 대체투자 중에서도 부동산 펀드, 부동산 담보대출채권 등에 투자를 늘릴 예정이다.

영국계 푸르덴셜의 투자운용 자회사인 M&G는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장기임대계약 매물에 집중 투자하는 부동산펀드에 총 9억 파운드를 투입했다. 또 상업용 오피스에서 상가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투자를 다각화하고 있다.

네덜란드계 ING 투자운용은 보험사 NN(Nationale-Nederlanden) 등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7억5000만 유로의 상업용 부동산 펀드를 조성했다. 독일계 생명보험사인 알리안츠도 2013년 이후 고속도로, 경기장, 대체에너지 개발 등 대체투자 사업에 4억 달러를 투자했다.

부동산 투자가 활성화된 미국 보험업계의 경우 상업용 부동산투자액은 지난 2013년 기준 6668억 달러(한화 약 732조원)에 달한다.

최근에는 중국업계도 국내외에서 부동산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 2대 생명보험사인 핑안(平安)보험그룹은 지난 2013년 7월 독일상업은행 부동산 그룹 산하의 한 펀드로부터 영국 보험그룹 로이즈(Lloyd's)의 런던 오피스 빌딩을 매수했다. 중국 양광(陽光)보험은 지난해 10월 호텔체인업체 스타우드그룹과 4억6300만 호주달러(약 4417억원)에 호주 시드니에 있는 쉐라톤온더파크 호텔을 인수했다.

같은 기간 중국 안방(安邦)보험도 미국 뉴욕 맨해튼의 호텔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을 19억5000만 달러(약 2조500억원)에 사들였다.

반면 국내사들의 부동산투자는 현재 미미한 수준이다.

부동산 전문컨설팅 그룹인 CBRE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업체의 부동산 자산 포트폴리오 비중은 2.4%에 불과해 미국(6%)과 영국(1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업계의 부동산 투자가 미미한 이유로는 각종 금융 규제가 원인으로 꼽힌다.

우리나라 보험업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는 업무시설용과 투자사업용으로 엄격하게 구분돼 있다. 투자용 부동산의 경우 사실상 공공성 사업으로 제한되 있는 것.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규제 시 적용되는 위험계수는 부동산 직접투자의 경우 6%, 부동산 간접투자는 주식과 동일한 12%가 반영되고 있어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의 경우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 주택사업, 신사옥 건설 프로젝트, 요양사업 등 다양한 부동산 수익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중국 정부도 지난 2012년 10월부터 해외 부동산투자를 허가하고 부동산 투자 제한요건도 현행 자산 20%에서 30%로 확대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국내 보험업계가 최근 저금리 기조 속에서 수익률 하락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부동산투자를 통한 수익확보도 한가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채권수익률에 준하는 안정적인 장기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투자 목표 수익률과 물건별 특성에 따른 차등화된 위험계수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용산 싱크홀' 시·시공사 책임공방

"부실한 흙막이 공사" vs "하수관로 노후화"

지난 20일 용산 아파트 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 원인을 두고 서울시와 시공사 간 표면 기싸움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인근 용산푸르지오써밋 아파트 공사 현장의 부실한 흙막이 공사를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지만 시공사인 대우건설 측은 공사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3일 서울시 관계자는 용산 인도함몰 사고 발생 후 가진 최초 현장 조사 결과에서 밝혔듯이 공사장 지하 터파기 중 지하수와 토립자 유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초 추정했던 원인과 달라진 바 없다"며 "굴착면 흙막이 누수로 인한 지반 침하가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파트 공사현장 주변도로에 추가 동공 발생 여부를 밝히고자 지반탐사를 시행했고, 그 결과 공사장 인근 5곳에서 지반층이 느슨하거나 균일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공사 현장 인근 도로에서 동공으로 의심되는 신호를 상당수 발견했다"며 "정밀검사는 용산구와 한국지반공학회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터파기 공사가 진행된 지하 10~12m까지 동공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에 한국지반공학회는 지난달 26일부터 보링조사 등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기간은 약 2개월 정도로 예상, 4월께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시는 조사 결과 시공 감리부실 등 시공사의 책임이 확인되면 공사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반면 대우건설은 진행 중인 정밀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원인을 속단하기 이르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측 관계자는 "인도침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지반공학회에서 아직 조사 중이고 조사에 필요한 굴착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사고 일대 지반부터 상하수도관까지 종합적으로 검사 중이다. 최초 토지 조성 시 특이사항 등을 다각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이번 사고와 유사한 도로 침하의 원인은 약 85%가 노후화된 상하수도관에서 물이 샌 경우"라며 "용산 일대가 매립이 많이 이뤄진 곳이라 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지역인데 공사만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고 현장 인근에는 대우건설과 삼성물산이 대규모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고 있다. 대우건설이 시공 중인 주상복합건물은 지하 9층, 지상 38~39층 2개동 규모로 2017년 8월 입주 예정이다. 삼성물산이 시공 중인 건물은 지하 9층 지상 최고 40층 2개동 규모로 같은 해 5월 입주예정이다.

/김희정기자 kmc@metroseoul.co.kr

대한스키협회 후원식 신한금융그룹은 3일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점에서 대한스키협회와 후원 조인식을 개최하고 설상 6개 종목을 후원하기로 했다. 이신기(왼쪽) 신한지주 부사장과 이재찬 대한스키협회 수석부회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제공

"갈대가 건축으로?"

현대카드,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 2015' 진행

현대카드는 3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현대카드 컬처프로젝트 18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 2015'를 연다고 밝혔다.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YAP·Young Architects Program)'은 뉴욕현대미술관이 젊은 건축가를 발굴하고 이들에게 재능을 펼칠 기회를 주고자 매년 개최하는 공모 프로그램이다.

이는 1998년 첫 선을 보인 이래 칠레와 이탈리아, 터키 등으로 그 대상지역을 확장하고 있다. 현대카드는 지난 해부터 아시아 최초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과 뉴욕 현대미술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오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올해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은 국내외 10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국내 건축학계와 언론계 등의 추천을 받은 총 27팀의 건축가(팀)를 심사해 SoA(Society of Architecture·이치훈, 강예린)를 최종 건축가로 결정했다.

SoA가 제안한 '지붕 감각'은 한국적 소재인 갈대의 재료적 특성에서 착안한 작품이다.

커다란 갈대밭이 공중에 걸려있는 듯한 느낌의 '지붕 감각'은 여름철 미술관 마당에 시원한 그늘과 함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제8전시실에서는 최종후보군에 오른 5팀과 추천 받은 20팀을 비롯해 올해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 글로벌 네트워크의 작품을 조망하는 전시가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프로젝트의 우승자와 최종 5팀의 계획안은 뉴욕현대미술관과 로마 국립21세기미술관, 이스탄불 현대미술관 등에서도 전시될 예정이다.

전시 관계자는 "올해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에는 뛰어난 국내 건축가들이 많이 참여해 최종 건축가를 선정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국내 신진 건축가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건축을 보다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미선기자 alvin1203@

이번엔
'특판채권'이다.

대신증권 특판 채권
시장금리 사상최저 시대
한국은행이 지급보증하는
통안채권을 특별판매합니다.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드리는
대신증권 특판 채권으로 옮기세요.
대신이니까, 크게 드립니다.
채권
특판
RP
조건별 한도
고객 감동센터 1588 - 4488
대신증권
Daishin Securities

후강퉁 관심 '후끈'… 투자 상품 '줄줄'

후강퉁 이벤트부터 다양한 보고서까지

주요 증권사들이 최근 중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후강퉁(중국 상하이증시와 홍콩 증시 간 교차거래) 투자 상품을 잇따라 선보이며 고객몰이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후강퉁 시행 이후 두 달 간 국내 투자자의 거래금액이 1조1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올해 첫 후강퉁에 직접 투자하는 일임형 랩 상품인 '대신 밸런스 후강퉁 랩'을 선보였다.

후강퉁(상해A주) 종목 가운데 중국 정부 정책과 트렌드에 맞는 저평가된 고배당주, 내수소비 우량주에 집중 투자하는 일임형 랩 상품이다. 이 상품은 최소가입 금액이 2000만원이다. 매매차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 과세만으로 분류과세된다는 게 특징이다. 고액투자자일수록 중국본토펀드에 투자해 매매차익에 대해 원천징수되는 것보다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핵심우량주에 대한 집중 투자로 상

중국이 지난해 11월 17일 상하이 주둥에 있는 상하이증권거래소에서 상하이 증시와 홍콩 증시 교차거래를 허용하는 후강퉁 개통식을 열고 후강퉁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연합뉴스

해종합주가지수 대비 초과 성과를 추구한다. 금액 제한 없이 추가 입금이 가능하고, 최소가입금액 초과분에 대해 부분 출금도 가능하다.

중국 본토 기업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펀드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유안타증권은 지난해말 중국 본토 우량채권에 투자하는 '동양차이나본토채권펀드'를 내놨다. 이 상품은 중국 본토채권에 투자하는 홍콩 자산운용사의 펀드에 재간접으로 투자한다. 이 펀드가 투자하는 해외펀드들은 중국 국공채와 중국 현지 신용등급 'AA' 이상의 우량 회사채에 투자한다. 평균 5% 이상의 만기보유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한다. 중국 본토채권에 투자하려면 원화를 달러로 바꾼 후 다시 달러를 위안화로 환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펀드는 원화 대비 달러에 대해서만 환헤지를 하고 위안화에는 100% 노출시킨 상품이다. 위안화 강세에 따른 추가 수익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후강퉁을 겨냥한 이벤트도 한창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중국본토 투자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후강퉁 고고 이벤트'를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영업점에서 해외주식 거래를 신규 신청 후 후강퉁 100만원 이상 매매고객 전원에게 5000원권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행사 종료 후에는 누적 매매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고객 중 추첨을 통한 1명에게 300만원 상당의 삼성여행상품권과 50명을 추첨해 거래금액에 따라 투자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대우증권 리서치센터는 중국시장 동향과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주간 차이나 마켓 네비게이션 이라는 정기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연 4% 수익 ELS 나왔어요

동부증권은 KOSPI200지수 하락폭이 30%를 넘지 않으면 연 4.0%의 수익을 지급하는 '동부 마이베스트 해피플러스 주가연계증권(ELS) 제3회'를 5일 정오까지 총 20억원 한도로 특별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

동부증권의 ELS·DLS 상품을 처음 거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이 상품은 KOSPI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개월 만기 원금부분보장형 상품이다.

만기평가일인 6월3일에 KOSPI200지수가 최초기준가격(3월5일 종가 기준)의 70% 이상일 경우 원금과 연 4.0%의 수익을 지급한다. 30% 이상 70% 미만일 경우에도 원금과 함께 연 3.8%의 수익을 지급한다.

KOSPI200지수가 30%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에만 원금의 95%를 지급한다.

손실확정 구간을 30% 미만까지 낮춰 안정성은 물론 수익성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상품의 특징이다.

최소가입금액은 1000만원이고 100만원 단위로 청약이 가능하며 개인별 청약한도액은 최대 5000만원이다.

단 동부증권 특판RP 가입경험이 있는 고객은 청약할 수 없다. 청약경쟁률이 1대1이 넘는 경우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정한다. /이보라기자

동부증권은 KOSPI200지수 하락폭이 30%를 넘지 않으면 연 4.0%의 수익을 지급하는 '동부 마이베스트 해피플러스 주가연계증권(ELS) 제3회'를 5일 정오까지 총 20억원 한도로 특별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 /동부증권 제공

하이투자증권, 최대 연 8.5% 수익 추구 ELS 등 공모 하이투자증권은 4일부터 6일 오후 1시까지 ELS 2종, DLS 1종을 총 150억원 규모로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하이투자증권 제공

'갤S6 효과'… 삼성 호실적 예고

갤럭시S6 출시 후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름세를 타고 있다. 증권가는 갤럭시S6 효과로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을 예견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지난 1일 삼성전자가 갤럭시S6를 선보이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다.

2일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4.86% 오른 142만3000원을 기록하며 지난 1월 27일 이후 한 달 만에 140만원대를 돌파했다.

3일에는 전일 대비 0.35% 하락했지만 141만8000원으로 140만원선을 여전히 웃돌았다.

증권가에서는 갤럭시S6 출시로 삼성전자 실적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하준두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하이엔드의 아이폰6플러스에 대적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있다면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라며 "삼성전자의 상반기 실적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갤럭시S6가 금속 소재 외장재와 일체형 배터리, 최초 무선충전 기능 탑재, 모바일 결제 관련 '삼성페이' 등 삼성전자의 프리미엄급 브랜드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라며 "이는 삼성전자 올해 IM 부문 수익성 개선과 2, 3분기 시장점유율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찬 신한금융투자 연구원도 "2분기부터 비메모리 부문의 본격적인 실적 개선과 갤럭시S6 효과로 6조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시현할 것"이라며 "2분기 갤럭시S6 판매량은 약 6조5000억원으로 예상되고 올해 연간 갤럭시S6 판매량은 갤럭시S5와 비교해 약 15% 증가한 4600만대에 달할 것"으로 보았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호실적을 기대하며 목표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했다.

신한금융투자는 목표가를 17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NH투자증권은 150만원에서 175만원까지 높여잡았고, KB투자증권도 162만원에서 175만원으로 올렸다.

신영증권 역시 목표가를 기존 155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승리기자 pump@

이재용 부회장 광폭행보가 만든 갤럭시S6

기획단계부터 주목받아…최강 스펙 무장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이 개발 전부터 글로벌 무대에 직접나서 진두지휘한 갤럭시S6가 '이재용 폰'으로 불릴만큼 기획단계부터 주목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스마트폰사업의 부진 타개책을 놓고 고심했고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믿고 갤럭시S6를 최강의 스펙으로 무장하는 방안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이 부회장이 작년 이후 해외 국내외 관련업계 거물급 인사를 잇따라 만나면서 물밑 접촉한 결과가 이번 신제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선 지난해 9월 이 부회장과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 회동을 다시 주목하고 있다. 이번 갤럭시S6에 MS 제품을 기본 앱으로 탑재한 것은 모바일 기기에서 존재감을 확대하려는 MS와 PC에서 손쉽게 호환할 수 있도록 호환성이 높은 소프트웨어를 통해 편의성을 극대화하려는 삼성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갤럭시S6(이하 S6엣지 포함)에는 기본 클라우드 서비스로 MS의 원드라이브가 탑재돼 있다. 당초 삼성은 드롭박스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했지만 이번부터 바꿨다. 뿐만 아니라 원노트(메모장), 스카이프(메신저) 등 다른 MS 서비스도 기본 앱으로 깔려있다.

페이스북과 페이스북 메신저도 갤럭시S6의 기본 앱으로 포함됐다. 지난해 10월 이 부회장과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의 만남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당시 저커버그는 페이스북 경영진 40여명을 대동하고 삼성 서초사옥을 찾아 양사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력관계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또한 이 부회장의 적극적인 러브콜이 있었기에 이뤄진 결과다.

특히 삼성전자가 갤럭시S6 공개와 함께 '올 뉴 갤럭시'라는 슬로건으로 모든 걸 다 새로 바꿨다고 강조한 만큼 갤럭시 브랜드의 리뉴얼뿐 아니라 삼성전자 자체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갤럭시S6 개발 프로젝트 이름도 '프로젝트 제로'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는 삼성전자가 이재용 시대를 열고 있다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때문에 이 부회장은 꾸준히 해외 IT 기업 인사들과 만남을 갖고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며 새로운 기술은 M&A를 통해 강화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예전의 모든 갤럭시는 잊어라'고 자신하는 이유도 바로 이때문이다.

삼성전자가 갤럭시S6의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디자인과 모바일 결제 시스템 또한 이 부회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갤럭시S6 전·후면에 채택돼 세련되고 고급스런 느낌을 주는 강화유리는 코닝의 간판 제품인 '고릴라 글라스 4'다. 코닝은 지난 40여년간 삼성과 돈독한 관계를 이어왔다. 웬델 윅스 코닝 회장은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잊지 않고 이 부회장을 만났다. 당시 면담에서도 코닝의 고릴라 글라스를 삼성 갤럭시폰에 원활하게 공급하는 문제가 논의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애플 페이에 맞서 삼성전자가 비장의 무기로 내세운 삼성 페이는 삼성이 지난달 18일 인수한 미국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루프페이의 작품이다. 이 부회장도 루프페이를 비롯한 핀테크(금융+기술)의 성장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한국을 찾은 핀테크 전문가 피터 틸 페이팔 창업자도 만났다.

이 외에도 최근 이 부회장은 반도체 부문 경영진과 미국 출장에 나서 비즈니스 리더들과의 만남을 갖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LG, MWC서 전략 제품 공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2015(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5)에 참여해 전략 제품과 혁신 기술을 대거 선보였다. 사진 왼쪽은 신종균 삼성전자 IM부문 대표가 1일(현지시간) 열린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S6'와 '갤럭시 S6 엣지'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외국인 관람객들이 피라 그란비아(Fira Gran Via) 전시장 내 LG전자 부스에서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삼성전자·LG전자 제공

삼성전자, 이미지센서·NFC 신제품 공개

삼성전자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015에서 신제품 모바일 이미지센서와 NFC 등 다양한 솔루션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RWB 패턴' 기반의 800만 화소 아이소셀 이미지센서는 최근 셀피(Selfie) 트렌드에 적합한 고화소 전면 카메라 센서다. RWB 패턴이란 기존 적색·녹색·청색의 RGB 패턴에서 녹색을 백색으로 대체해 빛 민감도를 높인 것으로 어두운 촬영환경에서도 밝기와 색 재현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다. 삼성전자는 각 픽셀에 물리적인 벽을 형성해 광 효율을 높이고 픽셀간 간섭현상을 최소화하는 '아이소셀' 기술을 적용해 노이즈를 최소화한 RWB 이미지센서(사진)를 구현했다.

함께 선보인 4세대 NFC 솔루션('S3FWRN5P')은 기존 3세대 제품 대비 RF(무선 주파수) 성능이 카드 모드에서 2배 이상, 리더 모드에서는 20% 향상돼 초소형 안테나의 사용이 가능하고 성능 향상을 위한 별도의 부스터 IC도 필요 없다. 또 업계 최초로 전용 단말기가 아닌 스마트폰에서도 모바일 POS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갤럭시 S6'와 'S6 엣지'에 안랩 시큐리티의 '에이피 바이러스스캔' 모바일 기술을 사전 탑재해 사용자에게 보안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 기술을 통해 갤럭시 S6와 갤럭시 S6 엣지 사용자들은 안티 멀웨어 스캐닝과 보안으로 모바일 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안랩 시큐리티 측은 설명했다.

/정혜인기자 hjung0404@

LG전자, 스마트폰·스마트워치로 IoT 기술 시연

차 제어·집안 관리 등 가능

LG전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15에서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를 통해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기술을 선보였다고 3일 밝혔다.

LG전자는 LTE 통신모듈이 탑재된 'LG 워치 어베인 LTE'로 자동차 제어와 무전기 기능을 시연했다. 아우디 자동차 전시존에서 스마트워치로 아우디 자동차의 시동을 온·오프하고, 운전석 도어를 개폐하는 기술을 소개했다. 또 가까운 미래에 선보일 스마트 워치와 자동차 간 다양한 연동 시나리오도 공개했다.

이와 함께 LG전자는 스마트워치로 다자간 동시 대화가 가능한 'LTE 무전기' 기능도 소개했다. 일반 무전기처럼 일대일 대화뿐만 아니라 같은 대화방 안에서 다자간 동시 대화도 가능하고, 사용자의 현 위치정보도 서로 공유할 수 있다.

곡면 디자인의 스마트폰 'G 플렉스2'로 외부에서 원격으로 홈 카메라 제어하는 기술도 공개됐다. 사용자는 G 플렉스2와 LG유플러스의 '맘카' 서비스를 연동해 실시간으로 집 내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맘카는 자체 마이크와 스피커를 내장하고 와이파이 연결을 지원하는, HD 화질의 가정용 홈 CCTV 단말기로 외부 침입자를 인식해서 스마트폰으로 자동 알림을 해주는 기능도 탑재됐다.

LG전자 모델들이 LG전자 전시 부스 내 IoT(사물인터넷) 존에서 LG G 플렉스2 스마트폰으로 에어컨을 원격 제어하는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LG전자 제공

조준호 LG전자 MC사업본부장 사장은 "스마트폰과 스마트 워치 같은 개인기기가 다양한 기기와 연동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며 "사물인터넷 관련 기술을 더욱 강화해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인기자 hjung0404@

삼성 김치냉장고 기획전서 공기청정기 증정

삼성전자는 겨울 이사철을 맞아 4월 말까지 김치냉장고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풍성한 혜택을 주는 '지펠아삭 매달그라운드 봄맞이 베스트 기획전'을 한다.

지펠아삭 M9000 김치냉장고 567ℓ 4도어 모델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황사와 미세먼지를 잡는 3중 필터를 장착한 70만원 상당의 2015년형 삼성 공기청정기 블루스카이 AX7000을 증정한다.

혼수 추천 모델과 이사 스페셜 모델을 구매하면 최대 1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레몬테라스, 은섬이네, 조보요리 등 온라인 인기 커뮤니티에 혼수 예단·이사 등으로 지펠아삭 김치냉장고를 구매한 사연을 남기고 응모하거나 이번 기획전 내용을 SNS에 스크랩한 고객을 추첨해 경품을 준다.

/양성운기자

쌍용차, '티볼리' 글로벌 론칭

제네바모터쇼서 세계무대 첫 선 소형 SUV 시장 공략

쌍용자동차는 '티볼리'와 콘셉트카를 선보이며 유럽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고 3일 밝혔다.

쌍용자는 '2015 제네바 모터쇼'에서 3일 프레스데이 행사를 열고 새로운 전략모델이 될 소형 SUV '티볼리'와 친환경 콘셉트카 '티볼리 EVR'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쌍용자는 오는 15일까지 계속되는 '2015 제네바모터쇼'에서 420㎡ 면적의 전시장에 'New Start with TIVOLI'를 주제로 '티볼리'와 콘셉트카를 비롯해 코란도 C(현지명 코란도)와 코란도 투리스모(현지명 로디우스), 코란도 스포츠(현지명 액티언 스포츠), '렉스턴 W(현지명 렉스턴)' 등 주력 모델들을 대거 전시했다.

이유일 쌍용자 대표이사는 "티볼리는 쌍용자의 첫 번째 소형 SUV로서 60년의 노하우와 장인정신이 오롯이 담겨 있다"며 "과시의 턴어라운드와 장기 전략에 핵심적인 모델로 개발 초기부터 유럽시장의 특성을 충실히 반영한 만큼 스타일과 안전성, 편의성 등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태준기자

쉐보레 국내 도입 4주년 기념 최대 120만원 지원

한국지엠주식회사(이하 한국지엠)는 글로벌 브랜드 쉐보레(Chevrolet)의 국내 도입 4주년을 맞이 3월 한달 간 '새봄, 새출발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다양하고 풍성한 혜택을 제공, 지난 4년간 쉐보레를 응원해 준 고객 사은에 보답한다.

한국지엠은 쉐보레의 국내 출범 4주년을 기념해 입학, 결혼, 출산, 이사, 신규 사업자 등 새로운 출발을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30만원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혜택은 지난달 일부 차종에 한해 적용됐으나, 3월 한달 간 쉐보레 전차종으로 확대 시행해 새로운 출발을 하는 고객들을 응원할 예정이다.

특히, 쉐보레 SUV 모델인 캡티바를 구입하는 고객은, 캡티바의 가장 인기 있는 옵션으로 구성돼 있는 최대 156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패키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더불어 국내시장 성과를 축하하기 위해 차종별 최대 120만원의 현금할인 지원 및 할부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 최근 출시된 2015년형 쉐보레 스파크의 경우, 무이자와 선수금 없는 1% 할부를, 2015 크루즈에는 2.9% 초저리 할부를 적용, 2개 차종에 대한 착한 구매조건으로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 밖에도 한국지엠은 3년 이상된 차량을 보유한 고객들이 알페온, 캡티바, 다마스 및 라보 구입 시 최대 50만원을 제공하며, 말리부(디젤 모델 포함) 구입 시에는 30만원의 혜택을 최초로 지원한다.

/김태준기자 fun@

"육해공 운송 시너지 극대화"

대한항공 창립 60돌 기념식

대한항공은 3일 서울 공항동 본사에서 임직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46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올해는 대한항공 창립 46주년인 동시에 한진그룹의 창립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라며 "항공운송, 육상운송, 해상운송을 아울러 전략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는 한 해로 만들어 새롭게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글로벌 선도 항공사가 되기에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외형적 성장이 아닌 질적 내실화를 꾀해야 하며, 오랜 세월과 경험이 축적된 규정과 절차는 지키는 한편 임직원이 주체가 되어 현실에 맞지 않는 것들은 과감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3일 서울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에서 대한항공 창립 46주년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한항공 제공

조 회장은 대한항공 근속 40주년을 맞아 남녀 직원 대표로부터 장기근속 축하 꽃다발을 받았다.

조 회장은 1974년 대한항공에 입사해 정비, 자재, 기획, 정보통신기술(IT), 영업 등 항공업무에 필요한 실무 분야들을 두루 거친 뒤 1992년 사장, 1999년 대한항공 회장에 이어 2003년 한진그룹 회장에 올랐다.

이날 행사에서 대한항공은 2월 11일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추돌사고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펼친 손용철 수석사무장을 비롯한 승무원 6명에게 유공표창을 수여했다.

/이장렬기자 rema@metroseoul.co.kr

현대·기아차, 제네바모터쇼서 신형 공개

유럽 맞춤형 신모델로 투싼·스포츠스페이스

현대·기아차가 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한 '2015 제네바국제모터쇼'에서 유럽 맞춤형 신모델을 다양하게 내놓고 유럽시장 공략에 나섰다.

현대자동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올 뉴 투싼을 처음 공개하고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시장에도 전장을 내밀었다.

올 뉴 투싼은 2009년 이후 6년 만에 나온 모델로, 이번달 국내를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유럽과 미국에도 출시된다.

신형 투싼은 기존 모델보다 전장은 65mm, 전폭은 30mm가 늘어나는 대신 전고는 10mm 낮아져 차체가 더욱 커지면서도 안정감은 더욱 강화됐다.

차량 앞부분에는 대형 육각형 모양의 헥사고날 그릴을 적용해 현대차의 패밀리룩을 계승했다.

올 뉴 투싼 디젤 유럽 모델은 배출가스 최소화와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개발됐으며 U 2.1.7ℓ 엔진과 R 2.0ℓ 엔진을 탑재했다.

가솔린 유럽 모델에는 최고출력 132마력, 최대토크 16.4kg·m의 감마 1.6ℓ GDi 엔진과 7단 듀얼클러치자동변속기(DCT)가 적용된 감마 1.6ℓ 터보 GDi 엔진을 얹었다.

이들 모델에는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B)과 스마트 후측방 경고 장치(BSD), 주차조향보조 시스템(SPAS) 등 최신안전 기술들이 적용됐다.

현대차는 이외에도 유럽 현지 전략모델인 신형 i20 쿠페와 i30, i40, ix20, 친환경 올 뉴 투싼 48V 하이브리드 쇼카, 디젤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쇼카 등 총 16대의 차량을 전시한다. i20 쿠페는 i20 3도어 모델로 터키 공장에서 생산돼 다음달부터 유럽에 시판된다.

기아자동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콘셉트카 '스포츠스페이스(Sportspace)'와 유럽 현지 전략 차종 씨드의 역동성을 강조한 '씨드GT 라인'을 공개했다.

독일 기아디자인센터가 개발한 스포츠스페이스는 장거리 운행에 적합하도록 디자인된 그랜드투어링 왜건 모델이다.

1.7 터보 디젤 엔진과 소형 전기모터, 48V 배터리 및 컨버터가 탑재된 'T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돼 친환경적이면서도 강력한 동력성능을 갖췄다.

씨드GT 라인은 씨드 GT 기본 모델의 외관을 계승하면서도 아이스큐브 타입의 LED 주간전조등을 달아 차별화를 꾀했다. 1.0ℓ 터보 GDi 엔진, 유로6 1.6ℓ 디젤 엔진, 7단 DCT 등을 적용해 동력 성능은 높인 점도 특징이다.

/김태준기자 fun@

현대엘리베이터, 260개 협력사와 동반성장 컨벤션

현대엘리베이터(대표이사 한상호)는 3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서울 크리스탈 블룸에서 동반성장 컨벤션을 개최했다.

사측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제조, 설치, 서비스, 시스템 솔루션 분야 260개 협력업체 대표와 현대엘리베이터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부문별 4개 우수 협력사 감사패 전달, 현대엘리베이터 협력업체 동반성장위원회 3자간 동반성장 협약서 조인식 등이 진행됐다.

한 대표는 기념사에서 "함께 일해 얻은 것을 함께 나누는 행복은 기업이 추구해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더 많은 협력사, 더 많은 승강기인들과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승강기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렬기자 rema@

장동현 SK텔레콤 사장이 2일 오후(현지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5'에서 관계자로부터 SK텔레콤 부스에 마련된 서비스 솔루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스타트업과 생태계가 중요"

장동현 SKT 사장 "사물인터넷 시장 성공모델 찾아야"

"사물인터넷 시대의 통신사 역할은 스타트업이 성공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장동현 SK텔레콤 사장은 지난 2일(현지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한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5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스타트업과의 상생을 강조했다. 장 사장이 취임 후 향후 사업 방향성을 소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 사장은 "사물인터넷에서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모델이 아직 많지 않다"며 "SK텔레콤은 사물인터넷 시장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단계이며 그 가능성을 스타트업 기업들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사장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 가장 치열하게 고민하는 기업이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는 MWC 전시장을 방문, 삼성전자, 노키아 등 글로벌 기업 부스를 둘러본 뒤 바로 스타트업들이 모여있는 전시장으로 이동했다.

장 사장은 세계 최초 5세대(5G) 네트워크 구현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장 사장은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5G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네트워크 구현 단계에서부터 새로운 서비스를 고민해 고객들에게 좋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선준기자 rsunjun@metroseoul.co.kr

황창규 "5G, 연결성·용량도 중요"

황창규 KT 회장은 3일 "5세대(5G) 이동통신 신기술은 속도뿐 아니라 연결성과 용량까지 모두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회장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서 "속도-연결성-용량까지 모두 갖춘 5G 네트워크는 혁신을 촉발할 것"이라며 "방대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네트워크 용량이 1000배까지 증가해야 하고 끊김 없는 연결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 회장은 "수많은 디바이스들이 실시간으로 엄청난 용량의 정보를 주고 받기 위해 초광대역 주파수를 활용하는 등 LTE 기술 한계를 뛰어 넘는 혁신적 기술이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 KT는 삼성전자와 함께 28GHz 밀리미터파 대역에서 800MHz의 대역폭을 이용하는 고집적(Massive) 안테나 기술을 활용해 최대 7.5Gbps의 속도를 구현했다"고 덧붙였다. 또 황 회장은 "앞서 LTE 기술 실현으로 인해 산업의 패러다임까지 변했다"며 "5G도 다양한 디바이스 확산과 함께 벤처기업들에 기회의 장을 제공하는 등 창조경제의 핵심기술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황 회장은 "사물인터넷(IoT)과 재난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D2D(Device to Device) 기술개발을 삼성, 퀄컴과 협력을 통해 끝마치고 상용화를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유선준기자

KT 황창규(右) 회장이 2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5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방문해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과 함께 갤럭시 S6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나 드림윙즈 5기 모집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5일부터 사내 대학생 참여프로그램 '아시아나 드림윙즈'를 모집한다고 3일 전했다.

모집은 마케팅 아이디어 공모전의 성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서류심사를 통해 30여 팀이 선발되며 프레젠테이션을 심사를 거쳐 최종 인원은 선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응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시아나 드림윙즈 홈페이지(dreamwings.flyasiana.com)를 통해 공개 될 예정이다. 선발 인원 중 우수 활동자들을 대상으로 꿈 여행을 위한 항공권이 특전으로 주어진다.

아시아나 드림윙즈는 2011년 1기부터 2014년 4기 모집까지 총 7928명이 지원하는 등 대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112명이 드림윙즈로 선발됐다.

드림윙즈 2기 출신인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캐빈승무원 김현지씨는 "아시아나 드림윙즈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라며 "짜여진 프로그램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만의 색깔을 찾을 수 있었던 꿈 같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드림윙즈 2기 출신인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캐빈승무원 김현지씨가 '2015 아시아나항공 드림윙즈 5기 모집' 포스터를 들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

/김소리기자 ksound@

이상철 부회장 "핀테크 중심 방향 모색"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5에서 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핀테크 사업의 미래 방향성 모색에 나섰다.

이 부회장은 "기술 대신 비즈니스 모델, B2B시장과 새로운 생태계의 등장은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군의 탈(脫) 금융 중개화를 촉진하고 있다"면서 "급격히 발전하는 금융 서비스의 생태계가 어떤 모델이어야 하는지 참조하고 금융권의 내용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LG유플러스는 이번 MWC 2015에서 쉐멧 등 결제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LG전자가 세계 최초로 선보인 롱텀에볼루션(LTE) 통신이 가능한 스마트워치 'LG 워치 어베인 LTE'에 LG유플러스의 바코드형 월렛 '스마트월렛' 서비스와 NFC 결제 서비스가 동시 탑재됐다.

다양한 멤버십 카드와 쿠폰 등의 관리는 물론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기에 'LG 워치 어베인 LTE'를 가까이 대면 충전과 결제가 모두 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간편 결제 서비스인 '페이나우' 가맹점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등 이동통신 3사 가운데 모바일 금융 분야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다.

이 부회장은 페이나우 간편결제 서비스의 확대 전략 차원에서 삼성전자가 갤럭시6 스마트폰에 탑재 예정인 삼성페이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선준기자

3일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5의 전시회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LGU+, 핀테크 확대

LG유플러스는 핀테크 사업 확대 차원에서 스마트폰에 이어 웨어러블 기기로 결제 가능 디바이스를 확대하는 한편 서비스 확장에도 나선다고 3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그동안 스마트폰에서만 제공됐던 모바일 지갑서비스인 '스마트월렛'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5'에서 LG전자가 선보인 스마트워치 'LG 워치 어베인 LTE'에 우선 탑재했다고 전했다.

스마트 워치에 LG유플러스의 스마트월렛이 탑재됨에 따라 그동안 스마트월렛을 이용한 사용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멤버십과 쿠폰을 쉽게 연동해 스마트폰 없이 워치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유선준기자

"경칩엔 봄도다리 쑥국 드세요" 현대백화점이 오는 6일 경칩을 맞아 봄 도다리를 선보였다. 도다리는 겨울 산란기가 지난 후 살이 통통하게 다시 차오르는 봄철에 담백하고 고소한 제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4일부터 6일까지 경인8개 점포에서 국거리용 도다리를 30% 할인된 가격인 100g당 1400원에 판매한다. /현대백화점 제공

현대 김포아웃렛, 4일만에 110억 매출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43·사진)의 야심작인 김포 프리미엄아웃렛이 양호한 출발을 보이고 있다. 계속되는 불황으로 경영 환경이 점차 악화되는 상황에서 현대백화점그룹의 유통업계 재건을 위한 첫단추가 성공적이라는 평이다.

3일 현대백화점그룹에 따르면 김포 프리미엄아웃렛은 오픈 4일 만에(2/26~3/1) 매출 11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 목표 대비 121%를 달성한 것.

이 기간 매장을 다녀간 고객 수도 차량 기준으로 7만9000대, 35만명에 달한다. 고객 1인당 평균 구매액(객단가)은 11만1700원으로 백화점에 비해 20% 가량 높은 수치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상권 내에서 처음 선보이는 해외명품 브랜드 구찌·버버리·랄프로렌 등은 줄을 서서 입장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고 분위기를 귀띔했다.

정지선 회장은 은둔 이미지를 벗고 공격적인 점포 확장을 통해 '정지선식 경영'을 선보이며 올해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있다. 불황 속 황금알로 통하는 아웃렛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첫단추로 지난 27일 김포 아라김포여객터미널 부근에 첫 교외형 프리미엄아울렛을 열었다. 2012년 현대백화점 충청점 이후 3년 만의 출점으로 그룹 차원의 의미가 크다.

현대백화점은 경쟁업체에 비해 늦게 뛰어든 만큼 차별화로 승부수를 띄웠다. 서울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프리미엄 아웃렛이라는 점을 내세운 김포점은 총 239개 브랜드 매장을 운영하며 해외명품 브랜드가 54개로 경쟁 아웃렛과 비교해 최대 20여개나 많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연면적 15만3600㎡, 영업면적 3만8700㎡에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다.

현대백화점그룹은 김포 프리미엄아웃렛의 성공적인 조기 안착은 물론 올해 9월 서울 송파구 장지동 가든파이브에 도심형 아웃렛 2호점을, 2016년 인천 송도에 프리미엄아웃렛 2호점을 여는 등 점포를 계속 늘려갈 계획이다. 또 서울 가산동에 도심형 아웃렛(현대하이힐)과도 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업계는 김포 프리미엄아웃렛의 이 같은 반응을 좀더 지켜 봐야 한다는 반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례적인 기록"이라면서도 "오픈 초반 효과일 수 있어 이러한 호황이 꾸준할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김보라기자

"롯데 미래 여성인재에 달려"

신동빈 회장 첫 여성 임원 간담회서 재차 강조

롯데그룹 여성 임원 간담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일 롯데그룹 여성 임원들과 만나 여성 인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2012년부터 임원을 포함한 여성간부사원(과장급)들을 대상으로 WOW(Way of Women) 포럼을 개최해 왔지만 신 회장이 그룹 전체 여성임원들을 한 자리에서 직접 만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룹 측은 설명했다.

신 회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마케팅·MD·광고·영업·온라인 사업·품질 관리 등 다양한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임원들로부터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격려했다.

신 회장은 "여성 고객이 많은 그룹의 특성상 여성인재 육성은 우리의 미래 성장을 위한 중요 과제 중 하나"라며, "여기 계신 여러분이 후배 여성인재들의 롤모델이 돼 롯데의 성장을 함께 이끌어 달라"고 참석한 임원들에게 당부했다.

또 "롯데그룹 여성인재 육성의 궁극적인 목표는 능력과 역량을 갖춘 여성 CEO를 다양한 분야에서 배출하는 것"이라며 "여성 육성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해 여성임원 비율을 3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라"고 관련 부서에 주문했다.

신 회장은 마케팅·MD·광고·영업·온라인 사업·품질 관리 등 다양한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임원들로부터 현장의 이야기를 여과 없이 듣고 그들의 수고에 대해 격려했다.

한편 롯데는 신동빈 회장의 지시에 따라 2006년부터 여성인력 채용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왔다. 신입사원 중 여성 입사자 비율은 2005년 25%였으나 지난해에는 35%를 넘어섰다. 2008년 90여 명에 불과하였던 여성 간부사원은 현재 870여 명으로 늘었다. 롯데는 2012년 처음으로 내부승진을 통해 여성임원을 배출하였으며, 현재 그룹 내 여성임원은 총 12명이다.

또 그룹 내 여성인력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여성인재들을 위한 근무여건 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롯데는 지난 2012년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해 출산을 앞둔 여성인재들이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더불어 육아휴직자들의 복직을 돕기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시행하고 복직플래너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여성인재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보라기자 bora6102@metroseoul.co.kr

식품업계 "원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라"

수확 1년 미만 국산 햇콩 두유·그날 바로 짠 100% 착즙주스 등 인기

식품업계에 원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 제품의 신선함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달하기 위한 제품 출시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수확 1년 미만의 원료사용과 그날 짠 착즙주스 등 신선함을 강조하는 제품들로 소비자들에게 더욱 건강한 느낌으로 어필하고 있다.

정식품이 최근 출시한 '베지밀 국산콩 두유'와 '베지밀 국산콩 두유 아몬드 호두'는 수확 1년 미만의 국산 햇콩만을 엄선해 만든 프리미엄 제품이다. 정백당과 액상과당 대신 장 건강에 좋은 올리고당과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칼슘과 비타민 D3를 사용했으며 합성착향료나 방부제를 첨가하지 않았다.

쥬씨리따 내추럴은 물 한 방울 넣지 않고 생오렌지 생자몽을 그날 바로 짠 100% 착즙주스다. 24시간 내 당일 착즙해 신선한 오렌지, 자몽의 맛과 향이 그대로 남아 있다.

닭고기 전문업체 하림의 '무항생제 새벽닭'은 당일 자정부터 생산해 이른 아침 판매하는 신선육 제품으로 갓 잡은 닭고기의 신선한 육질을 강조했다. 제품 포장에는 생산 날짜를 전면에 표시하고 당일 생산 당일 판매 원칙에 따라 신선함을 지킨다. 하림은 당일 생산판매를 위해 도계 즉시 생산과 가공이 가능한 '원 웨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야간 유통망을 확대해 배송 시간을 단축했다. 제품의 QR 코드를 통해 소비자들이 생산과 사육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생산 이력제도 적용했다.

동 코리아의 '후룻&넛츠'도 수확한지 180일 미만의 신선한 건과류와 건과일을 엄선했다. 건과와 건과일의 눅눅함을 방지하기 위해 각 봉마다 방습제를 넣었으며 제품의 산패 방지와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알루미늄 포장지를 사용했다.

뚜레쥬르, 中 신장위구르 1호점 오픈

CJ푸드빌(대표 정문목)은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르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이하 신장자치구)에 첫 매장을 오픈했다고 3일 밝혔다.

CJ푸드빌은 지난해 10월 말 신장 자치구 내 외식전문기업과 마스터 프랜차이즈(MF)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뚜레쥬르는 현재 중국 외에 미국·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캄보디아·말레이시아 등 국내 기업 중 최다 국가인 7개국에 진출해 172개 매장을 운영중이다.

CJ제일제당, 퀴노아·렌틸콩밥 출시

CJ제일제당은 슈퍼곡물의 소재인 렌틸콩과 퀴노아를 넣은 '햇반 슈퍼곡물 렌틸콩밥'과 '햇반 슈퍼곡물 퀴노아밥'을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된 햇반 슈퍼곡물 렌틸콩밥은 바나나 제품에 우유 한 컵과 토마토 한 개에 해당하는 단백질, 식이섬유가 함유된 것이 특징이다. 햇반 슈퍼곡물 퀴노아밥에는 단백질과 철분, 마그네슘 등 영양성분이 풍부하다.

페리오 키즈 양치세트' 3종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은 신학기 시즌을 맞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파워레인저·로보카폴리 캐릭터를 적용한 '페리오 키즈 양치세트' 3종을 출시했다. 가격은 6500원대.

'동원몰 차이나' 문열어

동원F&B가 운영하는 동원몰이 중국 해외직구족 '하이타오족(海淘族)'을 겨냥한 중문사이트 '동원몰 차이나'를 오픈했다고 3일 밝혔다.

동원몰 차이나는 한국 여행 시 중국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김을 비롯해 참치캔·화장품·생활용품 등 1500여 종의 한국 상품들을 판매한다. 동원몰 차이나를 이용하는 중국 소비자들은 배송대행 신청 등의 번거로운 절차 없이 원하는 한국 상품을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다.

이원희 대표, 모범 납세자 표창

동아오츠카의 이원희(61·사진) 대표이사 사장이 3일 제4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모범납세자로 선정,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동아오츠카는 윤리경영과 기업의 준수를 원칙으로 사회적 책임활동에 공적을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했다.

"일·가정 두 마리 토끼 잡는 직장"

연중기획 가정이 있는 직장

② CJ 그룹

7년 동안 대기업 홍보실에서 근무했던 A씨(43)는 육아를 위해 휴직을 하면서 10년간 경력이 단절됐다.

A씨는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3학년 두 딸을 두고 있다. 육아에 방해를 받지 않는 선에서 논술지도, 출판사 프로젝트 등 일시적인 업무를 해왔다. 큰 딸이 중학생이 되면서 정식으로 취업을 시도했지만 마흔이 넘은 나이와 오랜 경력단절 기간으로 서류 통과조차 어려웠다.

하지만 A씨는 2013년 9월 CJ그룹의 리턴십을 통해 CJ제일제당에 입사할 수 있었다. 너무나 절실히 원했던 직장 복귀였다. 처음에는 10년 전과 달라진 새로운 업무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낯설고 어색했다. 하지만 매일 출근해서 할 수 있는 일과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것이 참 즐겁고 재미있다. 관련 식품 지식 등 공부도 열심히 하며 자신의 꿈을 키우고 있다. '일하는 엄마'를 좋아하는 딸과 자신을 응원해주는 남편은 A씨의 또 다른 행복이다.

CJ그룹이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 프로그램인 '리턴십' 제도 시행으로 엄마들의 꿈의 직장이 되고 있다.

CJ그룹은 임직원들이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리턴십'이 가장 대표적이다.

'리턴십'은 지난 2013년 6월 국내 대기업 최초로 실시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인턴 제도다. 출산과 육아로 직장을 떠나야 했던 여성 인력에게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현재까지 총 360여 명이 CJ제일제당, CJ푸드빌, CJ프레시웨이, CJ대한통운, CJ E&M, CJ CGV 등 주요 계열사에 입사해 근무하고 있다.

CJ그룹은 2013년 6월부터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맞춤형 인턴 제도인 '리턴십'을 국내 대기업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CJ리턴십 채용설명회 현장.

경력단절여성 위한 '리턴십' 통해 360명 계열사 재취업… 정규직과 처우 같아

'리턴십'은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시간제와 8시간 근무하는 전일제 2가지로 운영한다. 면담을 통해 원하는 근무 시간대로 조정도 가능하다. 특히 여성 인력이 가정과 직장에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초과근무를 시킨 상사에게 '경고' 조치를 하고 있다. 5회 이상 경고가 쌓일 경우 연말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리턴십 케어 시스템'도 도입했다.

'리턴십'을 통한 입사자들은 모든 처우가 정규직원과 동일하다. 급여와 일부 현금성 복리후생만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되고 있다. 특히 타 기업들의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대부분 단순 지원성 업무인데 비해 CJ 리턴십은 디자인, 인사, 마케팅 등 전문직군에도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마련해 질적으로 차별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CJ측은 시간적 제약이 있는 리턴십 근무자들이 기존 구성원들과 무리없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직무군을 개발하고 선별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외에 여성 인력 육성을 위한 지원제도 강화에 ▲임산부 유연 근무시간제 ▲난임 부부를 위한 시술 비용 지원 ▲유산 휴가 보장 제도 ▲직장 내 보육시설 확충 등을 시행중이다. CJ그룹 관계자는 "이 같은 제도를 통해 CJ그룹은 임신하거나 임신을 계획중인 여성 직원들이 마음 편히 가정과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라고 말했다.

CJ그룹은 국내 20대 그룹 중 고용계수 1위를 차지, 매출 대비 일자리 창출 능력이 가장 크다. 고용계수는 10억원의 매출이 발생할 때 그룹 내 직접적으로 늘어나는 근로자 수를 나타내는 지표다. 특히 수출주도형 제조업을 바탕으로 한 타 그룹사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CJ그룹은 식품사업에 주력했던 기존 사업군을 ▲식품서비스 ▲신유통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바이오 등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같은 창조적 사업다각화 성공과 일자리 창출의 비결로 '인재제일' 경영철학을 꼽고 있다.

/김수정기자 ksj@metroseoul.co.kr

공동기획 여성가족부 metro

경단여성 73% "다시 돌아가면 일 관두지 않겠다"

경력단절 여성 3명 중 2명은 "직장을 그만둔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동일한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해 일에 대한 열의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CJ그룹이 CJ리턴십 채용에서 필기전형 응시자 159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직장을 그만둔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2.79%는 '직장을 그만두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만두겠다'는 응답률은 25.96%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절반인 50.64%는 리턴십 지원 동기로 '자아실현'을 꼽았다. '사회생활에 대한 미련'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2.85%에 달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생계'(13.94%)라고 답한 응답자보다 2~3배 높은 수치다. '육아나 가사에 대한 피로감'이라는 응답률은 1.99%에 그쳤다. CJ측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직장을 단순히 생계수단이나 가사로부터의 도피가 아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경력단절 이유 '출산·육아 때문' 리턴십 동기 1위 '자아실현'

직장을 그만 둔 이유는 '육아'와 '출산'이 대부분이었다. 경력단절 이유로 '육아'와 '출산'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70%에 육박했다. 이어 결혼(13.60%), 배우자의 이동(6.33%) 등의 순이었다.

재취업을 하면 가장 갖고 싶은 것을 묻는 항목에는 '새로운 인간관계'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52.34%에 달해 가장 많았다.

재취업 시엔 '가족의 도움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남편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한 경력단절 여성은 56.37%에 달했다. 또 '친정'과 '시댁'이라는 응답도 각각 8.93%, 3.51%로 나타났다. 회사(24.82%)와 정부(5.40%)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재취업 시 가장 걱정되는 것은 '가사와 육아'가 54.89%로 가장 높았다. '업무 성과 미흡' 24.92%, '새로운 관계에 대한 두려움' 17.72%, '시댁이나 가족의 반대' 1.17%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기혼 여성 5명 중 1명 꼴로 육아 등을 이유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기준 기혼여성은 956만1000명으로 이중 213만9000명(22.4%)이 경력단절 여성으로 집계됐다.

/김수정기자

"우리는 건강 전도사"

뉴트리라이트 대학생 기자단 5기 출범

뉴트리라이트는 '뉴트리라이트 대학생 기자단 5기'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기자단은 '건강'을 주제로 대학생들에게 아이디어 실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최종 선발된 30명의 기자단이 뉴트리라이트 대학생 프로그램의 슬로건인 '건강이 진짜 스펙이다'를 주제로 건강의 가치와 영양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기자단의 주요 프로그램은 ▲뉴트리라이트 마케팅 이벤트 현장 참여 ▲연예인 트레이너와 스타 트레이너 운동 특강 ▲온·오프라인 팀 프로젝트 ▲건강 관련 콘텐츠 기획·제작 ▲월별 특별 Fun 개인 미션 등이다. 또 뉴트리라이트는 기자단에 팀 활동비를 지원하고 매월 우수기자 3인을 포상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활동 실적이 우수한 기자들에게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뉴트리라이트 건강연구소(Center for Optimal Health) 방문 등 해외탐방 기회도 주어진다.

최정이 뉴트리라이트 마케팅 부장은 "대학생 기자단은 취업와 스펙 쌓기로 자칫 건강에 소홀할 수 있는 대학생들에게 건강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학생들의 건강 인식 개선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을 확대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7일과 28일 경기도 분당 암웨이 브랜드 센터(ABC)와 양평 소재 펜션에서는 1박 2일에 걸쳐 기자단 발대식이 열렸다.

/황재용기자 hsyu 38@metroseoul.co.kr

쉐라톤 인천호텔, 여유로운 봄 패키지 2종

따사로운 봄 햇살과 싱그러운 산들바람이 가득한 송도국제도시의 센트럴파크에서의 편안하고 여유로운 추억을 위해 쉐라톤 인천 호텔은 오는 5월 31일까지 다양한 혜택으로 구성된 봄 패키지 2종을 선보인다.

'안녕 봄 패키지'는 가까운 곳으로의 부담 없는 봄 여행을 위해 디럭스 룸 1박과 쉐라톤시그니처 레스토랑 피스트에서의 2인 조식과 함께 쉐라톤피트니스, 실내 수영장 등의 부대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봄을 위한 삼시세끼 패키지'는 아름다운 서해의 낙조와 이국적인 송도신도시의 매력을 둘러보며 호텔 내에서 여유롭게 삼시세끼를 즐길 수 있다. 저녁에는 일식 레스토랑 미야비 또는 이태리 레스토랑 베네에서 봄 특별 디너 세트 메뉴를, 상쾌한 아침에는 객실 내에서 여유롭게 인-룸 조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로비라운지 카페선에서 샌드위치박스를 테이크 아웃해 센트럴파크에서 피크닉을 즐기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

/김보라기자 bora@metroseoul.co.kr

스키장 최대 50% 할인

곤지암리조트 이벤트

서브원 곤지암리조트가 스키장 시즌 종료(3월 8일 예정)까지 최대 50% 할인하는 '늦겨울 우대 이벤트'를 선보인다.

먼저 3시간권 이상 미타임패스 리프트권을 20% 우대해 판매한다. 또 주중(일~목요일) 심야 시간대인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30% 할인되고 주말 조조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는 4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예매를 하거나 신한카드로 결제하면 10% 추가 할인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곤지암 스키&보드 스쿨 강습도 특별한 가격에 즐길 수 있다. 1대 5 또는 1대 7 강습이 시즌 종료까지 20% 우대되며 신한카드 결제 시 10% 추가 할인된다. 이외에도 장비 풀세트 렌탈은 40% 할인된 1만8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황재용기자

강강술래, 3월 '새봄맞이 경품 대축제'

한우사골곰탕박스 반값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3월을 맞아 푸짐한 선물을 증정하는 '새봄맞이 경품 대축제'를 벌인다.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sullae.com) 고객마당 경품이벤트에 신청상품과 이유를 남기면 참여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무료 증정한다.

먼저 보양식 '늘봄갈비탕(500g·7팩·14인분)' 또는 늘봄 육개장(500g·7팩·14인분) 선물세트를 준다.

또 청담동 헤어&메이크업숍 '작은차이'의 헤어 커트 무료이용권을 주며 '더 늙어 보이는 여자 더 어려 보이는 여자', '부동산 상식사전' 등 길벗 추천도서도 증정한다.

한편 이달 15일까지 온라인쇼핑몰(sullae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한우사골곰탕박스(350g·10팩)을 약 50% 할인된 3만1500원에 판매한다.

/김수정기자 ks.0315@

전자담배 노보, 영화 신세계 패러디 광고 공개

정성호·안영미 열연

전자담배 제조 전문 기업 한테크 노보의 온라인 CF 영상 '편세계'의 티저 영상이 화제를 모은 가운데 본편이 공개됐다.

영화 '신세계'의 명장면을 패러디한 영상에는 카리스마 가득한 정성호와 아름다운 실루엣으로 등장하는 안영미가 노보 전자담배를 피우며 끝난다.

전속 모델인 두 주인공은 '노보 라운드'의 온라인 광고를 위해 지난 1월 추운 겨울 날씨에도 야외 촬영을 감행했다.

'편세계' 영상과 노보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테크 노보 공식 홈페이지(http://www.hantech novo.co.kr/) 또는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cflavo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노보는 3월 석디른 콘셉트로 개발된 액상 '노보 리퀴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김수정기자

이대목동병원, 신규 센터장 보직 인사 발령

이대목동병원(원장 유권)이 지난 1일자로 주요 센터장 인사 발령을 단행했다.

먼저 QPS(Quality Improvement Patient Safety)센터장에는 박미혜 산부인과 교수가 임명됐으며 호흡기센터장에는 천은미 호흡기내과 교수가 선임됐다.

또 강덕희 신장내과 교수가 신장센터장을 맡았으며 홍영선 내분비내과 교수가 당뇨센터장으로 활약하게 된다. 이와 함께 김한수 이비인후 두경부외과 교수가 두경부암 갑상선센터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병원 관계자는 "인사 발령은 이미 여대 의료원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이대목동병원의 각 센터별 경쟁력 강화와 함께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외국어 실력 보다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국명 기자의 취업토크
이남수 로레알코리아 HR 부장

"외국어 실력보다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외국계 기업 합격 여부를 좌우할 때가 많습니다. 스펙이 아무리 뛰어나도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라는 인상을 주지 못하면 외국계 기업 취업 관문을 통과하기 힘듭니다."

세계 1위 다국적 화장품 기업 로레알의 한국지사인 로레알코리아의 이남수 HR 부장은 이렇게 강조했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외국어 실력만 지녔다면 웬만한 외국계 기업에 충분히 입사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지원자를 위한 기회는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스스로 쌓은 경험과 능력을 표현하는 능력에 대해 국내기업보다 훨씬 철저히 평가한다고 이 부장은 충고했다.

◆ 리빌 등 이색채용 과정 중요

"로레알코리아의 경우에도 스펙이나 토익 등 영어 성적은 참고자료로만 사용합니다. 글로벌 마케팅 공모전인 브랜드스톰과 온라인 비즈니스 게임인 리빌(Reveal) 등에서 보여준 성적이 더 중요한 평가요소죠. 특히 리빌은 게임이라는 혁신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직무 분야를 경험하고 탐구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잠재된 가능성까지 발견할 수 있어 지원자들에게도 높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리빌은 게임과 로레알의 매니지먼트 트레이니로 입사해 실제 기업 문화와 직무별 특징을 경험하는 방식이다. R&D, 마케팅, 오퍼레이션, 파이낸스, 영업 등 주요 직무 '방'에 입장해 다양한 캐릭터를 만나며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역량은 물론 적성 성향까지 파악할 수 있다.

◆관련 서류 미리 작성해 제출해야

로레알코리아 등 외국계 기업들은 업무 유연성이 국내 기업보다 높기 때문에 색다른 방식으로 인사를 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업 홈페이지 등을 통해 채용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공채보다는 결원이 생길 때마다 수시채용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도 미리 준비해 채용공고가 나왔을 때 되도록 빨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국계 기업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한 커버레터(Cover Letter) 이력서(Resume) 자기소개서(Self-Introduction Letter) 등을 준비해야 한다. 성장 배경, 과거 경험, 성격의 강점·약점, 지원 동기 등 문항이 정해진 국내 기업의 입사 지원서와는 달리 자유 형식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업무 수행 능력과 경험을 드러내야 한다. 채용 공고의 직무 분석표(Job description)에 나오는 자격 조건(Qualification)에 어울리는 인재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다.

◆국내기업에서 쌓은 경험도 유용

외국계 입사를 노리는 구직자라면 직원추천제에도 주목해야 한다. '자기사람 챙기기'라는 비판도 있지만 해당 직무에 어울리는 지원자는 사내 직원들이 가장 잘 안다는 평가 때문에 외국계 기업 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기업·공기업과는 달리 로레알코리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외국계 기업에서는 신입사원 때부터 프로젝트를 직접 도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원추천제에 대한 선호가 높습니다. 국내기업에서 관련 직무 경험을 하면서 인맥을 쌓으면 좋은 기회가 생길 수도 있죠. 인턴·공모전 등을 통해 직무역량에 대한 자발성과 변별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글로벌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기자 son@

세계 여성의 날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세계여성의 날 홍보 캠페인'에서 시민들이 직장내 여성 성희롱과 부당 대우 사례에 대한 홍보 선전판에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뉴시스

남성 결혼·여성 출산 포기 많아

경제 불황과 취업난 속에 남성은 '결혼', 여성은 '출산'을 가장 많이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사람인은 2030세대 2880명을 대상으로 "연애, 결혼, 출산, 대인관계, 내 집 마련 중 포기한 항목 여부"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응답자의 57.6%는 '포기한 것이 있다'고 답했다.

젊은 세대가 가장 많이 포기하는 항목은 '결혼'(50.2%·복수응답)으로 조사됐다. 이어 '내 집 마련'(46.8%), '출산'(45.9%), '연애'(43.1%), '대인관계'(31.7%)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은 '결혼'(53.2%)을, 여성은 '출산'(50.7%)을 가장 많이 포기한다고 답했다. 포기를 처음 결심한 시기로는 '첫 취업에 성공한 시점'(29.9%)이 제일 많았다.

포기 이유로는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49.8%)가 1위에 올랐다. 2위는 '현재 수입이 없거나 너무 적어서'(43.1%), 3위 '평생을 돈을 모아도 힘들어서'(40.9%) 등 경제난이 주된 포기 사유로 거론됐다.

/정호씨기자

구인구직 빠른 정보 터치하세요

상반기 공채 앱 열전

상반기 공채 포문이 열리면서 구직자들의 취업 열정이 바빠졌다. 이 때 구인구직 정보 앱은 손안의 비서가 될 수 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겁나 빠른 공채'란 공채 전용 앱을 운영 중이다. 이 앱은 입사 지원 기업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인적성검사,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등 전형별 일정을 실시간으로 안내 서비스한다. SNS 연동 기능도 있어 친구들과 채용 정보 공유도 가능하다. 관심 있는 기업을 '찜'해서 원하는 공채 정보만 모아 볼 수도 있고 찜한 기업의 새로운 정보가 있을 때마다 팝업으로 알려주기도 한다. 기업 소개, 채용정보, 인사계도, 공채 전형별 일정 등 다양한 공채 관련 정보도 수록돼 있다.

사람인은 앱 '공채의 명가'와 '취업 스터디'를 서비스하고 있다. '공채의 명가'를 터치하면 '1000 대기업 공채속보'를 월간·주간으로 볼 수 있는 '달력뷰', 꼭 필요한 정보가 리스트상에 알록달록하게 정리된 '카드뷰' 등으로 공채 일정을 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합격 단계에 따른 인적성·면접 전형별 관리와 알림설정 기능 등도 유용하다.

취업 스터디 앱은 주제별 지역별 카테고리와 직접 검색 기능을 통해 희망 스터디들 손쉽게 연결된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연락처 입력만으로도 즉시 신청이 가능하며 이용자가 직접 스터디를 꾸릴 수도 있다. 푸시알림 기능을 통해 신청서 열람·모집 마감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아르바이트 앱은 취업 비용을 마련하고 쉽거나 이력서 경력을 쌓으려는 구직자에게 유용하다. 포털 알바몬과 알바인, 알바 천국은 아르바이트 채용 앱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앱은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해 사용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구직이 가능한 알바 자리를 소개하는 것이 특징이다. 거리나 위치를 스마트폰 지도로 확인하고 바로 지원할 수 있어 원하는 알바를 구하기 수월하다.

/정윤희기자 unique@

metro entertainment

차도녀→반전녀…'팔색조 매력'

'진짜 사나이-여군특집2' 강예원

강예원(35)은 차갑고 도시적인 이미지를 가진 배우다. 볼륨감있는 몸매로 언제나 주목 받았다. 그러나 그는 MBC 예능프로그램 '진짜 사나이-여군특집2'에서 최고 반전녀로 등극했다. 알이 크고 두꺼운 안경을 쓴 채 졸고 있는 얼굴 그대로 드러냈다. 개구리 왕눈이의 여자친구와 흡사해 '아로미'라는 별명을 얻었다. 아로미는 강예원의 어릴 적 별명이기도 하다. 다섯 살 때부터 시력이 좋지 않아 안경을 썼다. 많이 넘어졌고, 여군특집 훈련 중에도 발목을 다쳐 수술할 예정이다.

"발목 수술을 해야 돼요. 뼛가루가 끼어있는 상태여서 지금 깁스를 하고 있어요. 군대니까 부상에 예민해지더라고요. 눈이 안 보이니까 발목까지 안 좋아졌죠. 레드카펫을 걸으면 (넘어질까 봐) 매니저들이 더 긴장해요."

강예원의 남동생은 해병대 출신이다.

"남동생은 '그럴 줄 알았다'며 웃기만 하죠. 근데 화생방 훈련은 어떻게 성공한 거냐고 놀라면서 의심해요. (웃음) 방송에도 나왔지만 소대장님이 '잘 했어?'라고 묻자마자 '네'라고 자신 있게 답했잖아요. 뭔가를 숨기지 못하는 제 모습이 웃기더라고요. 가장 힘들었던 건 바느질이었어요. 눈이 원수라고 생각하면서 할머니 같은 제 모습을 원망했죠.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엄마는 비난 웃어요. 입소 전에 슬퍼하실 거 같아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제가 지상파에 출연해서 좋으신 거 같아요."

동기 후보생 윤보미의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됐다.

"24시간 관찰카메라를 보면 사람 성향이 드러나잖아요. 열심히 했죠. 예능을 찍으러 왔는지 올림픽을 찍으러 온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모자란 사람도 있는 법인데 우리 멤버들은 다 잘하는 거 같았어요. 자책하고 있는데 윤보미가 '나도 건망고 눈물이 많다. 울지 마라'고 위로했어요. 그때 저만 뒤처진 게 아니란 걸 깨달았죠. 요즘 여자들은 다 편 줄 알았어요. 특히 박하선이 그렇게 강할 줄 몰랐어요. 멤버는 같은 회사에서 반가웠어요. '예쁘다'는 표현은 엄벼를 두고 하는 말인가 봐요."

왠지 이제 더 친근한데…?

시력 나빠서 툭하면 '꽈당'
깁스 중… 발목 수술해야
도전의 아이콘으로 성장

'여군특집' 꽈약체인 그는 고소공포증을 극복하고 동기들을 위해 용기를 내며 도전의 아이콘으로 성장했다. 촬영 마지막 날이 돼서야 적응이 된 그는 "다시 찍으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제작진에게 말했다.

"저는 누군가를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사나이'는 저와 맞지 않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죠. 센 척하지 말고 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면 되더라고요. 도도한 이미지였고 의상도 노출이 많은 걸 입었었는데 실제 저는 노출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 모습만 보다가 운동복 입고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친근하게 느끼시더라고요. 이젠 강박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연기 활동을 하고 싶어요. 벌거 벗은 제 민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지만 오히려 사람들에게 저를 알린 계기가 됐어요. 긍정적으로 좋은 배우로 살 수 있을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진짜 사나이'에 출연하길 잘 한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여배우들에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원망 들을 거 같거든요. (웃음)"

/전효진기자 jeonhj@metroseoul.co.kr

star bag

단독콘서트서 신곡 공개

그룹 엑소가 단독 콘서트에서 신곡을 공개한다.

이번 공연에서 대세 타시 발표 타이틀곡 엑소의 정규 2집 수록곡, 새로운 편곡과 안무로 재탄생된 히트곡 무대를 선보인다. 엑소의 콘서트는 오는 7~8일과 13~15일 총 5일 동안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다.

드라마·영화 동시 공략

배우 윤진서가 오는 19일 개봉되는 영화 '태양을 쏴라'·내달 방송되는 SBS 새 수목극 '감각남녀'로 스크린과 안방을 동시 공략한다.

윤진서는 '감각남녀'에서 냉철한 엘리트 경찰 염미 역을 맡았다. KBS2 드라마 '도망자 플랜B' 이후 4년 4개월 만의 지상파 복귀라 주목된다.

'스물'로 영화 첫 주인

그룹 2PM 이준호가 두 번째 영화 '스물'(감독 이병헌)을 통해 주연으로 컴백한다.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만화가를 꿈꾸는 스우 삼동우 역을 맡았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20대 캐릭터로 관객의 공감을 자아낼 예정이다. 이준호 외에도 김우빈, 강하늘이 출연한다. 오는 25일 개봉.

'다 카포' 수록곡 첫 라이브

가수 유희열의 원맨 프로젝트 토이가 7년 만에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에선 지난해 11월 발매된 토이 7집 '다 카포' 수록 곡을 최초로 라이브로 들을 수 있다.

콘서트는 내달 2~4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다.

SNS 세대가 빠진 온라인의 달콤함

film review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 소셜포비아

영화 '소셜포비아'(감독 홍석재)의 주인공인 지웅(변요한)과 용민(이주승)은 태어나고 자라면서 인터넷을 자연스럽게 접해 온라인이 익숙한 청춘들이다. 경찰시험을 준비 중인 이들에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는 현실의 답답함을 풀 수 있는 유일한 해방구다. 매일 끊이지 않고 등장하는 온라인 세상 속 이슈에 사로잡힌 이들은 익명성이라는 달콤한 가면을 쓰고 마음껏 분노를 표출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낀다.

영화는 지웅과 용민이 다른 누리꾼들과 함께 한 탈영병의 자살에 악성댓글을 달던 여성 누리꾼 레나와의 '현피(온라인에서 다투던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만나 싸우는 것)'에 나서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룬다. 레나의 신상을 캐낸 이들은 당당하게 그녀의 집을 찾아가지만 그곳에는 목을 맨 채 천장에 매달려 있는 레나의 시체가 있을 뿐이다. 정의의 사도에서 순식간에 자살을 방조한 가해자가 된 지웅과 용민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털어 내기 위해 레나의 죽음이 타살이라는 의혹을 제기한다.

'소셜포비아'는 무분별한 악성 댓글과 신상 털기로 온라인에서 반복되는 마녀사냥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물론 우리는 그것이 온라인의 익명성이 지닌 양날의 검 같은 측면 때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소셜포비아'가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SNS 세대'인 지금 시대의 청춘들이 온라인에서 왜 이런 행동들을 하는지를 파헤친다는 것이다.

레나의 죽음에 감춰진 진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등장하는 단서들 속에서 서서히 그 모습을 나타낸다. 그러나 지웅과 용민이 마주하게 되는 진실은 그들이 바랐던 것과는 거리가 멀다. "외롭은 강하지만 그걸 지탱할 일단이는 작은 것, 요즘 애들은 다 그렇잖아요"라는 대사에는 지금 시대의 청춘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이 있다. 또 다시 마녀사냥이 반복되는 모습은 온라인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취약한 청춘들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

'소셜포비아'는 파수꾼', '짐승의 끝', '잉투기' 등을 배출한 한국영화아카데미의 장편제작 연구과정 작품이다. 이전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젊은 감독이 자신들 세대의 이야기를 솔직하고 공감가게 그려내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리듬감 넘치는 편집과 음악, 그리고 변요한과 이주승의 생기 넘치는 연기까지 그야말로 젊은 감각으로 똘똘 뭉친 영화다. 15세 이상 관람가. 12일 개봉.

마녀사냥 얽힌 청춘 이야기…편집·음악·연기 젊은 감각으로 뭉쳐

빅뱅·2NE1 세계적 인기

레이디가가 등과 유튜브 뮤직 어워드 수상

빅뱅과 2NE1이 '2015 유튜브 뮤직 어워드' 수상자로 선정됐다.

YG엔터테인먼트는 3일 "빅뱅과 2NE1은 K-팝 가수 중 유일하게 샘 스미스, 비욘세, 아리아나 그란데, 빅 션, 레이디 가가, 드레이크 등 쟁쟁한 글로벌 아티스트와 함께 이번 수상자 명단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유튜브는 지난 6개월 간 영상 조회수와 구독자 수를 바탕으로 선정한 수상자 명단을 2일 발표했다. 별도의 시상식을 개최하지 않는 대신 찰리XCX, 에드 시런 등 일부 수상자가 참여한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23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빅뱅은 3년 만에 발표할 새 앨범 준비에 매진하고 있으며 2NE1의 씨엘(CL)은 미국 데뷔를 준비 중이다. 산다라 박은 한중합작 웹드라마 '닥터이안'에 출연한다.

/탁진현기자

온라인 이슈

이태임 촬영장서 잇단 '막말' 논란

배우 이태임이 MBC 예능 프로그램 '띠동갑내기 과외하기' 녹화 도중 상대 출연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하차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3일 오후 한 매체는 연예계 관계자의 말을 빌려 "이태임이 최근 겨울 바다에 입수해서 촬영을 하던 중 '춥지 않느냐, 괜찮니'는 상대 출연자의 말에 갑자기 심한 욕설을 내뱉으며 화를 냈다"며 "갑작스러운 이태임의 행동에 모두 놀라 촬영이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태임은 지난달 27일 녹화부터 합류하지 않았다. 녹화 당일까지 연락이 닿지 않다가 갑자기 몸이 아프다며 불참을 통보했다. 가수 이예준과 지난달 '띠동갑내기 과외하기'에 '메남매녀' 커플로 합류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이재준 예원 측은 "문제가 있었긴 건 맞지만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하기가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태임은 드라마 '내 마음 반짝반짝' 촬영 당시 김유진 PD와도 심하게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민기자

국카스텐이 지난달 27일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클럽에서 열린 제1회 라이브 클럽 데이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다. /컴퍼니에프 제공

홍대 앞 '불금' 다시 부활했다

라이브 클럽데이 4년 만에 열기…다양한 연령대 2천여명 운집

홍대 앞 쿠겁게 음악 축제 '라이브 클럽 데이'가 4년 만에 화려하게 부활했다.

지난달 27일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라이브 클럽엔 '불금(불타는 금요일)'을 즐기기 위한 음악 팬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라이브 클럽 데이는 홍대 일대 여러 클럽에서 열리는 공연을 티켓 1장으로 즐길 수 있는 음악 축제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열린다. 주관사 컴퍼니에프에 따르면 이번 라이브 클럽 데이엔 약 2200여 명의 관객이 모였다.

컴퍼니에프는 "체감온도 영하 10도를 밑도는 매서운 추위에도 오전 9시부터 예매 티켓 교환처에 관객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며 "1500장의 예매 티켓 중 100장 한정으로 판매되는 블라인드 티켓은 57초 만에 매진됐다"고 전했다.

라이브 클럽 데이를 찾는 관객 연령층도 다양해졌다. 10년 전 사운드데이와 클럽데이를 모두 경험한 20대 후반~30대 관객은 물론 라이브 클럽 데이를 처음 경험하는 20대 초중반의 관객과 외국인 관객도 늘어났다.

컴퍼니에프는 "라이브 클럽 데이는 홍대신을 보태로 하는 한국의 인디 음악 뮤지션과 관객이 다시 한 번 뜨겁게 조우하는 장으로 자리잡았다"며 "첫 회에 시행착오를 겪은 부분은 개선하고 더 폭넓은 관객층이 쉽게 찾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고 평가했다.

올해 2번째 라이브 클럽 데이는 오는 27일 열린다. 장기하와 얼굴들, 게이트 플라워즈, 9와 숫자들, 고고 스타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solanin@

우리의 혁명은 숲에서 시작된다
ROBIN HOOD
DAS MUSICAL
로빈훗
2015.1.23-3.29 · 디큐브아트센터
유준상 서영주 이건명 홍경수 엄기준 조순창 박진우 박성환 규현 양요섭 서지영 김이산

슈퍼 루키 vs 슈퍼 루키

김효주·리디아 고 LPGA 싱가포르 대회서 격돌…한국선수 5연승 관심

'코리안 골퍼'로 여자골프계 슈퍼 루키인 국내파 김효주(20)와 해외파 리디아 고(18)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무대 맞대결을 펼친다.

차세대 여자골프 선두주자로 꼽히는 이들은 5일부터 나흘간 싱가포르의 센토사 골프클럽 세라퐁 코스(파72·6600야드)에서 열리는 LPGA 투어 HSBC 위민스 챔피언스(총상금 140만 달러)에 나란히 출전한다.

지난 시즌 신인왕을 차지한 리디아 고는 뉴질랜드 교포 출신이다. LPGA 투어 2년차로 LPGA 투어 호주여자오픈 우승에 이어 지난주 유럽여자프로골프 투어(LET) ISPS 한다 뉴질랜드 여자오픈 우승컵까지 2주 연속 정상에 올랐다. 박인비를 제치고 세계랭킹 1위를 달리고 있다.

국내 무대를 평정한 김효주는 지난해 9월 LPGA 투어 비회원 자격으로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에 출전했다. LPGA 투어 회원 자격으로 처음 출전한 지난주 혼다 LPGA 타일랜드에서는 공동 23위로 관록할 만한 성적은 내지 못했으나 첫날 이븐파를 제외하고는 사흘 연속 언더파 점수를 내며 빠른 적응력을 보였다.

올해 라이벌 구도를 형성할 이들의 맞대결이 싱가포르 대회에서 성사돼 골프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세 차례 맞대결에서는 리디아 고가 두번 판정승 했다. 2013년 12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스윙잉스커츠 월드레이디스 마스터스에서 리디아 고가 우승한 반면 김효주는 공동 4위에 머물렀다. 지난해 4월 LPGA 투어 스윙잉스커츠 클래식에서도 우승컵은 리디아 고의 손에 돌아갔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에비앙 챔피언십에서는 김효주가 우승했고 리디아 고는 공동 8위의 성적을 냈다. 이번 대회는 김효주가 LPGA 투어 회원 자격을 얻은 이후 첫 격돌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흥미를 보이고 있다.

한편 혼다 타일랜드에서 우승한 양희영(26)과 세계랭킹 2위 박인비 외에도 유소연, 최나연 등이 총출동해 LPGA 투어 개막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한국계 선수들의 우승 행진이 이어질지 기대된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류현진 불펜피칭 "등 통증 이상무"

커쇼 5년 연속 개막전 선발

류현진(28·LA 다저스·사진)이 스프링캠프에서 약간의 등 통증을 호소하며 훈련을 거른 뒤 처음으로 불펜피칭을 소화했다.

류현진은 3일(한국시간) 다저스 스프링캠프인 미국 애리조나주 글렌데일 캐멀백 랜치 스타디움 불펜에서 32개의 공을 던졌다.

현지 언론은 "비 때문에 다저스 대부분의 선수가 실내 훈련을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며 "하지만 류현진과 초엘 헤글락이 좋은 소식을 전했다"며 류현진의 불펜피칭을 전했다.

MLB닷컴은 "류현진은 이날 빗속에서 불펜피칭을 소화했고 훈련을 마친 뒤 '팔이나 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해 부상 우려를 말끔히 씻었다"고 보도했다.

류현진은 지난달 26일 스프링캠프에서 두 번째 불펜 피칭을 하고 등에 통증을 느껴 그동안 실내에서 러닝 등으로 가볍게 몸만 풀었다.

이제 류현진은 타자와 주자 등을 두고 실전과 비슷한 분위기를 만들어 던지는 라이브 피칭을 소화해야 한다. 회복 속도에 따라 불펜피칭을 한 차례 더 하고 라이브 피칭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시범경기 등판은 3월 중순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저스는 5년 연속 클레이턴 커쇼(27)를 개막전 선발로 내세우기로 결정했다. 다저스는 다음달 7일 홈인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개막전을 치른다.

커쇼는 그동안 네 차례 개막전에서 4승 무패로 100% 승률을 기록했다. 그는 "팀에 좋은 투수들이 많은데 개막전 선발로 뽑힌 것은 큰 영광"이라며 "이제 목표가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민준기자

"한화 쉽게 봤다간 큰 코 다쳐"

정근우 자신감…"턱 부상 호전 개막전 출전 가능"

"한화 이글스 쉽게 봤다간 올해는 큰 코 다칠 것이다."

베테랑 2루수 정근우(33·사진)가 지옥의 스프링캠프를 거치며 팀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일본 오키나와현 아이세 고친다 구장에서 스프링캠프를 마치고 3일 귀국한 정근우는 "스프링캠프에서 정말 많이 연습했다"며 "개개인이 준비만 잘하고 들어간다면 대등하게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장 김태균을 비롯해 고참 선수들끼리 분위기를 바꿔 강한 한화의 이미지를 보여주자고 이야기했다"며 "올해는 정말 쉽게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경기를 이기며 나아가야 선수들이 서로를 믿고, 팀이 끈끈해지는 부분이 생긴다"며 "시즌 초반 성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김성근 감독 스타일로 김 감독은 과거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선수단을 준비시켜 둔 뒤, 시즌 초반부터 앞서 달려나가 팀을 정상에 올리곤 했다.

턱 부상으로 잠시 훈련을 접은 그는 "크게 다치지 않고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다른 방식으로 안 좋던 부분의 몸을 만들고 있으니 시즌 개막에 맞춰 출전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준기자

강정호 유격수로 첫 실전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가 4일 새벽(한국시간)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메이저리그 첫 시범경기에서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다. 타선은 6번이다. 견실 뒤에 한국인에서 실력 같이 3번 타자 유격수로 출전막 유격수 자리로 돌아났다. /AP·연합뉴스

해링턴 7년 만에 PGA 우승

파드리그 해링턴(44·아일랜드·사진)이 7년간의 침묵을 깨고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해링턴은 3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린 PGA 투어 혼다 클래식 4라운드에서 타수를 줄이지 못해 합계 6언더파 274타로 대니얼 버거(미국)와 연장에 들어갔다. 1차 연장전을 비긴 해링턴은 17번 홀(파3)로 이어진 2차 연장에서 파를 잡아 티샷을 물에 빠뜨린 버거를 따돌렸다.

해링턴은 2007년과 2008년 브리티시 오픈을 제패한 뒤 2008년 PGA 챔피언십에서도 우승하는 등 최고의 전성기를 보냈다. 이후 잦은 부상에 시달렸고 새로 바꾼 스윙에 적응하지 못해 슬럼프를 겪었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PGA 투어 여섯 번째 우승컵(메이저대회 3승 포함)과 함께 상금 109만8000 달러(약 12억9000만원)를 수확해 재기를 선언했다.

/김민준기자

현대오일뱅크 5년째 K리그 스폰서

현대오일뱅크가 5년 연속 프로축구 K리그 타이틀 스폰서로 나선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3일 "현대오일뱅크가 올해도 K리그 타이틀 후원사를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오일뱅크는 2011년부터 K리그를 후원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현대오일뱅크는 K리그 클래식과 챌린지 대회 타이틀 명칭권을 비롯해 LED보드, 롤링보드, A보드 경기장 그라운드 광고권, 골대 옆 90도 시스템 광고권, 경기장 내외 각종 설치물 광고권 등을 확보하게 됐다.

/김민준기자

제2롯데월드 기술 자랑보다 공포 해소 먼저

기자 수첩
박 선 옥
<경제부 기자>

첫 삽을 뜨기도 전부터 안전성 논란에 시달린 제2롯데월드가 을 들어 뒷북 해명은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그동안은 사건이 터진 뒤에야 "안전에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제2롯데월드는 먼저 안전관리위원회를 신설, 롯데건설과 롯데물산으로 이원화된 창구를 단일화했다.

위원회는 시공기술발표회를 열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균열과 소음 진동, 구조 토목설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앞으로도 매달 초고층 공사, 초고층 안전관리, 측량, 양중, 특수구조물 공사, 엘리베이터 공사 등에 대해 전문가를 초청해 점검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

국내 최고층 건물 롯데월드타워에 다양한 세계적 기업들의 기술이 적용됐다는 자랑도 잊지 않고 있다.

최근 "롯데월드타워 머리부터 발끝까지 캐나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일본, 미국, 영국 등 세계 초고층 전문기업들의 기술이 녹아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안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제2롯데월드가 불안하다는 반응이다. 영화관과 수족관이 문을 닫은 영향도 있겠지만 제2롯데월드 2월 하루 평균 방문객은 개장 당시와 비교해 30~40% 줄어든 실정이다.

매달 전문가를 불러다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수없이 설명하고, 얼마나 많은 초고층 기술과 장비가 투입됐는지 강조해도 시민들의 불안이 가라앉지 않는 것이다.

제2롯데월드 입장에서는 이 같은 노력에도 시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계속되는 게 억울할 수 있을 터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 뒤에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된 '제2롯데월드=공포'라는 공식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이성으로 공포감을 없앨 수는 없다. 기술에 대한 설명도 좋지만 공포감부터 지울 수 있는 다른 방안도 고민해봐야 할 때다.

날씨

3/4 水 ☀ 07:00 ○ 18:28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6.re.kr

몸이 저리거나 마비가 오는 경우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생기면 뇌졸중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곧바로 가까운 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
감기가능지수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www.mdc.re.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6		2			
		6		7		8		
7						1	9	
	3	8		2				4
		7				5		
6				4		9	3	
	7	3						1
		2		1		3		
			4		7			

			6	4		5		
	2				6			
						2	4	3
4	8		1					6
9				3				8
7					6		9	2
6	7	9						
			5				3	
		3		6	1			

스도쿠 정답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e-sajul06.com

교직생활 접고 한의학·불교 빠져 의학부문에 관심 갖고 공부하시길

zkvpamahd 남자 79년 음력 3월12일 오후 6시쯤

Q 가까운 친척조카입니다. 현재 상황이 너무도 답답하고 걱정이 돼 되어 문의 드립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교직에 있다가 2011년 직장을 그만두고는 한의학과 불교에 심취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도 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이성에도 당연 관심이 없습니다. 불교에 관심은 있지만 스님 될 생각은 없는 듯 얘기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적응하지는 못한다면 조카가 자리의 구도의 길을 가도 되는지, 그렇다면 적극 권해볼 생각입니다.

A 생일지에 현침(懸針)은 활인(活人)의 기를 띠고 사주 안에 천문성(天門星)이 있고 화개살(華蓋殺)이 존재하고 있으니 불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성정과 각오가 종교에 귀의할 수 있는 지가 중요하겠지요. 본의 아니게 남의 일에 관심이 더 많고 밖에서는 무골호인이지만 집안에 들어 와서는 무뚝뚝하고 우울하고 번민하는 증세를 나타내기도하여 걱정될 것이며 지궁에 辰戌이 있어 당분간 결혼은 어렵다고 봅니다. 지난 2012년부터는 하는 일에 장애와 경쟁이 많이 따르는 시기에 들어섰는데 직장을 그만 둔 것으로 액을 면한다고 볼 것입니다. 액은 면했지만 그럼에도 수(水) 기운이 부족하여 즉 전달이 메마른 현상으로 뜻하는 바가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니 매우 특별한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구도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미온으로는 안 되고 단단한 마음을 먹고 일정기간의 수련을 마친 다음에 각종 의례를 거쳐야 할 것인데 따라서 각 종단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입문에 일정한 자격 조건이나 교육의 과정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승단에 오랫동안 존속해오면서 자정 승계의 규정을 위시한 여러 가지 규범들이 필요해졌기에 과정과 조건들이 생겨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주 태어난 년(己未年)에서도 학문의 별이 있고 흐르는 세운에서 2015년 하반기부터 인성(印星)으로 학문의 기운이 도래하니 의학부분에 관심을 먼저 갖고 공부를 해보십시오. 제도권 안에서 시작하기 어려우니 아름다운 결실을 어우러지며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시는 것과 불교에 관심을 갖는 것은 반가운 일이겠으나 직업을 선택하라고 하기에는 먼 길일 것 같이 좀 더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생략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게재하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3월 4일 (음 1월 14일) 사주스[illegible]

쥐 48년생 만남이 있으니 안전을 주의 하여 합니다. 60년생 배신, 모함 수 있습니다. 72년생 많은 열심히 하니 뜻을 이루기는 대한습니다. 84년생 추종률은 없으나 흠이 될 굴리지 않습니다.

소 49년생 욕심으로 은혜 나쁜 기운을 받게 됩니다. 61년생 소홀하지 못하면 재물을 좋을 수 없습니다. 73년생 사람을 잘 사귀어야 좋습니다. 85년생 주변의 말을 듣지 듣고 듣지 고민하고 결정하세요.

호랑이 50년생 가는 길이 첩첩 어려움이 따릅니다. 62년생 어려운 마음을 경계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74년생 금전운이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86년생 꾸꾸기관을 조심하세요.

토끼 51년생 좋은 사람이 일을 도와 크게 성공합니다. 63년생 빛난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75년생 늘 변화를 추구하도록 하세요. 87년생 이성을 가까운 곳에서 찾도록 하세요.

용 52년생 주변사람들에게 인기가 넘치는 하루입니다. 64년생 번혁하던 같은이 얻습니다. 76년생 고집을 버리고 주변얘기를 들으세요. 88년생 기분을 좀 가라앉히고 서두르지 마세요.

뱀 53년생 완성된 일을 망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65년생 새로운 일을 시도하면 성과가 생깁니다. 77년생 가는 길 마다 환영을 받습니다. 89년생 용돈이나 칭찬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말 54년생 가족과 고인을 상의하세요. 66년생 호수를 지켜 객관적으로 행각하세요. 78년생 사업을 하면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90년생 미뤄놓던 일을 계획해 보세요.

양 55년생 서먹한 사람과 사이가 좋아집니다. 67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하세요. 79년생 일거리가 끊임없는 바쁜 하루를 보냅니다. 91년생 급한 중 당신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원숭이 56년생 사직이 반 입니다. 68년생 남을 도와주면 나중에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80년생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92년생 기대가 큰 만큼 실패도 큰 법입니다.

닭 57년생 주변의 유혹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69년생 친구의 시소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81년생 맛있는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93년생 좋은 활으니 마음이 편안합니다.

개 58년생 한발 물러서서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70년생 집 밖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82년생 사방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94년생 사랑이 하는 사람을 거리가 먹습니다.

돼지 59년생 주변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세요. 71년생 애니 지쳐지는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83년생 노력의 대가를 보게 됩니다. 95년생 연인에게 선물을 하면 좋은 기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삼겹살 마음껏 드세요~ 삼겹살데이로 불리는 3월 3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서문시장에서는 '9회 전통 삼겹살 무료시식 행사'가 열렸다. /연합뉴스

올해 대학이 바라는 인재상은

주요대 총장들 신입생에게 '창의·인성' 강조

주요 대학 총장들이 입학식에서 지식쌓기보다 창의·인성을 강조했다.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2일 열린 입학식에서 축사를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훌륭한 인재는 지성과 공공성으로 무장한 따뜻한 가슴을 겸비한 선한 인재"라며 "지식과 스펙만을 갖춘 지식기술자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선한 사람들의 공동체 일원으로 개인과 사회를 조화롭게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무 한양대 총장은 "우리 학교는 실용 학풍으로 인재를 육성해 국가 발전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전공과 교양 영역 등 전체를 아우르는 다이아몬드형 인재가 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규상 성균관대 총장 역시 "전공 분야와 함께 인문학과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을 학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통섭의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염재호 고려대 총장은 가수 양희은씨의 노래 '봉우리'의 가사를 읊으며 새내기들을 맞이했다. 염 총장은 "올라올 때는 보이지 않던 길이 봉우리에 올라와 보면 다시 다른 봉우리를 향해 나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21세기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정보를 창의적으로 조합해 복잡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문가들만이 대접받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정갑영 연세대 총장은 리처드 바크의 소설 '갈매기의 꿈'을 통해 메시지를 전했다. 정 총장은 "다른 갈매기들이 그물에 걸린 생선 한 조각을 위해 다툴 때 조나단은 하늘로 높이 날아오르며 비행술을 훈련했다. 조나단과 같은 창조적인 인재만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신입생들을 격려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서울 올해 살림 규모 27조

8대 특별·광역시 평균의 3배 '훌쩍'

서울시의 올해 살림규모가 8대 특별·광역시 평균액의 3배를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시 재정공시에 따르면 2015년 세입예산은 27조4996억원으로 지난해 예산보다 1조1340억원이 증가, 8대 특별·광역시의 평균액(7조937억원)보다 19조5959억원(약 3.4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8대 특별·광역시는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이다.

일반회계 기준 서울의 올해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14조9065억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은 2조9529억원, 지방채와 보전수입 등은 3994억원으로 파악됐다.

서울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에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월등했다.

재정자립도는 스스로 살림을 꾸릴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올해 서울시의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80.4%로 나타났다. 8대 특별·광역시의 평균 자립도는 61.2%로 이보다 훨씬 낮았다.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에서 용도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뜻한다. 올해 서울시의 자주도는 80.99%로 나타났다. 8대 특별·광역시의 평균(69.56%)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서울시는 "서울의 재정규모는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크고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역시 다른 특별·광역시 대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우리 시의 재정상태는 전체적으로 건전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현정기자

조합장 선거 꼭 투표하세요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둔 3일 서울 강동구 강동농협 본점 회의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안내문 접송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4월부터 기초연금 월 20만2600원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노인이 4월 1일부터 받는 기초연금은 최고 20만2600원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5년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월 20만26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에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연금법에 따라 2014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이 반영돼 올해 기준연금액이 조정됐다. 정부는 당초 2014년도 물가상승률 전망치 1.8%를 반영해 2015년도 기준연금액을 월 20만3600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1일 나온 통계청의 최종 물가상승률이 1.3%로 집계돼 기초연금액을 1000원 줄였다.

또 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의 상향 조정으로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2014년 447만명에서 463만7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현정기자 [illegible]

대학생 해외 현장실습 지원

정부, 1090명 파견

정부가 대학 재학생이나 1년 이내의 졸업생 등 1000여 명의 해외 현장실습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2015년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계획'을 시행해 총 1090명을 해외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먼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미연수취업(WEST) 프로그램에는 390명이 참여하게 된다. 미국에서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인턴으로 일하게 되는 이들에게는 왕복항공료, 300만원과 어학연수비, 생활비 등이 지원된다.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700명을 선발한다. 참가 학생은 6개월 동안 외국에서 현장실습을 하게 되고 항공료와 비자발급비, 보험료 등을 정부로부터 받게 된다. /황재용기자

인사

■신한금융지주
전보 ▲리스크관리 담당 상무 김형근

■서울시 SH공사
본부장 ▲기획경영본부장 김우진

■한화생명
전무 승진 ▲지원부문장 김현우 ▲FP영업본부장 문병철 ◇상무 승진 ▲인재차원실장 정하영 ▲경인지역본부장 김광성 ▲뉴욕주재사무소장 임성현 ◇상무보 승진 ▲대구지역본부장 김주성 ▲중부지역본부장 김원삭 ▲소비자보호팀장 남광현 ▲FP지원팀장 김정문 ▲인재개발팀장 오세정 ▲퇴직연금사업부장 최성익 ▲경영관리팀장 나재범 ▲투자전략팀장 김민호 ▲종합연수보험 주재원 성윤호

■이대목동병원
센터장 ▲QPS(Quality Important Patient Safety) 박미혜 ▲호흡기 한은미 ▲신생 김억희 ▲당뇨 홍익선 ▲두경부암·갑상선 김완수

■현대증권
임원 ▲구조화금융본부장 겸 상무 김상훈 ◇부서장 ▲PF투자실 고영우 ▲SF투자실 송현석 ▲복합투자실 안지우

■한국신용유가
▲재무기획실 재무본부장(상무) 곽정경 ▲C&C혁신본부장(이사) 윤기 ▲평가정책본부장 인태경 ▲재무기획본부장 이준현

■덕성여대
▲부총장 윤예리 ▲교무처장 한재홍 ▲기획처장 겸 ▲학생처장 박건계 ▲입학홍보처장 이용수 ▲평가처장 여정호 ▲대외협력처장 최승훈 ▲산학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이경미 ▲대학원장 정충서 ▲특수대학원장 이경옥 ▲인문과학대학장 오현근 ▲사회과학대학장 이운진 ▲자연과학대학장 강금지 ▲정보미디어대학장 유권이 ▲약학대학장 신혜순 ▲예술대학장 박현선 ▲교양학부장 이항주 ▲도서관장 정력독 ▲평생교육원장 이계한 ▲언어교육원장 윤혁철

■숭실대
◇보직 임명 ▲사회과학대학장 이민호 ▲경영대학장 전달영 ▲법학전문대학원장 윤종권 ▲약학대학장 박설영 ▲의과대학장 김도운

■숙명대
▲교육혁신개발원장 조효로 ▲UNCA사업단장 이상돈 ▲홍보전산원장 고혜대 ▲교육실험실습관장 겸 부속고장장 나종기 ▲신문방송사 주간 김선학 ▲국제교육혁신센터장 최종국 ▲정보보호영재교육원장 김은수

■동양대
▲교학처장 허노상 ▲행정지원처장 홍승택 ▲선비사관학교원장 김용관

부고

▲신광철씨 별세, 신동진(제물포고 교장)씨 부친상, 장인희(서인천고 교사)씨 시부상 = 3일 오전 1시 인천 청기와 장례식장 301호, 발인 5일 오전 8시 (032-573-4444, 010-5331-5304)

▲한필덕씨 별세, 김상형(전 경향신문 부사장) 성기·창복·창호·창길·춘희씨 모친상 = 3일 오전6시 전남 무안종합병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6일 오전 9시 061-453-4555

▲김성준씨 별세, 김소정(대구달서하울시립) 지연(주부)·하영오(덕원고 교사)씨 부친상, 우봉구(대구지방경찰청 경위)·하노식(사업)·김재영(동아일보 경제부 기자)씨 장인상 = 2일 오후 9시 대구 가톨릭대병원 장례식장 특5호실, 발인 4일 오전 8시 053-655-4504

▲이동진 경북대학교 경애교수)씨 별세, 창주(서울 특허법원의원 원장)·세나(범림 21세기학교 박사)·주나씨 부친상, 유기상(수성카톨릭재활 과장)·노인종씨 장인상 = 2일 오후 1시 경북대병원 장례식장 특101호, 발인 5일 오전 7시. 053)200-6141

간통죄 재심 청구 많지 않을 듯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때도 예상보다 적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거센 후폭풍이 불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간통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사람들의 재심 청구는 수십건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2009년 11월 26일 혼인빙자간음죄 처벌 규정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이 선고된 뒤 약 한달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재심 사건은 40여 건에 불과했다.

위헌 결정 이후 현재까지 전체 재심 사건도 수십건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는 헌재법 47조가 개정되기 전이어서 형법이 제정된 1953년까지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칠 때였다. 무려 55년 동안 혼빙간 혐의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누구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혼빙간 혐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무죄를 받기 위해 굳이 다시 공개된 법정에 나와 피고인 진술을 하는 부담을 떠안으려는 사람은 적었다. 헌재법 47조는 지난해 5월 개정됐다.

이 조항은 간통죄 처벌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해도 헌재의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2008년 10월 30일 이후에 형이 확정된 사람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내용이 바뀌었다.

간통 혐의로 사법 처리된 사람은 10만명에 육박하지만 개정된 헌재법에 따르면 재심 청구 대상은 최대 3000여 명 정도로 추산됐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주유소 유류탱크 폭발 인명피해 없어 3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주유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근지역에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폭발 당시 유류탱크 위에 놓여 있던 건축 자재 등이 주변 이면도로에 튀어 차량 등에 흠집이 갔다. /연합뉴스

2년간 3억5000만원어치 공구 훔친 40대 구속 대구 중부경찰서가 지난 2년간 공구를 상습적으로 훔친 40대 남성을 구속했다. 사진은 이 남성이 그동안 훔친 공구들. /연합뉴스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경찰, 병원장 기소 의견으로 송치

고(故) 신해철씨의 사망이 수술 후 복막염 징후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의사의 과실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신씨를 수술한 S병원 강모(44) 원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4시45분께 송파구 S병원 3층 수술실에서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강 원장은 신씨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병행했으며 수술 후 신씨의 소장과 심낭에 각각 1㎝와 3㎜의 천공이 생겼다.

또 이후 신씨는 고열과 백혈구 수치의 이상 증가, 마약성 진통제가 듣지 않는 심한 통증 등의 증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강 원장은 이런 증상을 '통상적인 회복과정'이라며 적절한 진단과 치료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퇴원 후 신씨는 같은 달 20일 새벽 38.8도의 고열과 통증을 호소하며 다시 병원을 찾았으나 이때도 강 원장은 "수술 이후 일반적인 증상이고 참아야 한다. 복막염은 아니니 안심하라"며 마약성 진통제와 산소만 투여했다.

이에 경찰은 조사 결과 수술과정에서 생긴 손상에 염증이 생겨 구멍이 뚫리는 지연성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 관계자는 "강 원장은 복막염을 지나 패혈증 단계에 이른 상황을 진단하지 못하고 적극적인 원인규명과 치료를 게을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원장은 경찰에서 "신씨가 연예활동 때문에 퇴원해야 한다고 말해 막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강 원장이 신씨를 입원시킨 뒤 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

<전 제주지검장>

김수창, 변호사 활동 당분간 못한다

심사위 부정적 의견

길거리 음란행위로 물의를 일으켜 사직한 김수창(53·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당분간 변호사 활동도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변호사회 김한규 회장은 "김 전 지검장이 최근 변호사 등록 신청을 내 심사위원회가 열렸다.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있은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라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본다"고 3일 말했다.

아울러 심사위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심사위는 김 전 지검장에게 의사의 치료확인서 등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서류가 제출되면 한 차례 더 위원회가 열리고 여기서 결론이 나면 김 전 지검장의 활동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한편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제주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제주지검장직에서 물러났다. 또 검찰은 지난해 11월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 전 지검장에게 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황재용기자 hsoul38@

'재력가 살인혐의' 팽씨 2심서 사형 구형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에게서 부탁을 받고 60대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된 팽모씨의 항소심에서 사형이 구형됐다.

3일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팽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팽씨의 변호인은 "사건 이후 할 수 있는 일은 잘못을 고하고 속죄하는 일밖에 없다고 여기며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팽씨는 이어 "큰 죄를 지었다"며 "주시는 벌을 달게 받고 평생 속죄하면서 밤낮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 팽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 의원 측은 항소심에서도 결백을 주장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날 팽씨에 대한 심리를 일찍 마무리한 뒤 다음 재판에서는 김 의원의 혐의와 관련한 증인으로 팽씨를 신문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포함해 두 차례 정도 재판을 더 진행한 뒤 김씨에 대한 심리도 마무리하기로 했다.

김씨는 재력가 송모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인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현정기자

9년간 절도 현장에 담배꽁초 남긴 도둑 덜미

남의 집을 털 때마다 현장에 담배꽁초를 남기는 기행을 9년간 이어온 도둑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전모(52)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2006년 7월 4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서울 동부권과 경기도 성남·안양 일대의 다세대 주택과 반지하방에서 114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전씨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면 고춧가루와 멸치, 냄비 등 식료품과 생활용품까지 무차별적으로 훔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그는 매번 물건을 훔칠 때마다 현장에 자신이 피운 중국제 담배의 꽁초를 남겼다. 또 그는 주로 CCTV가 없고 인적이 드문 외국인 거주밀집지역을 노렸다.

경찰 관계자는 "담배 종류와 확인된 DNA가 동일했기 때문에 지난 9년간 '중국 담배꽁초 절도 사건'이라고 불렀으나 치밀한 범행수법으로 단서가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달 12일 금천구 독산동의 범행현장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으로 전씨의 모습을 확인해 잠복 끝에 전씨를 체포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경찰은 알려지지 않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씨를 조사하고 있다. /황재용기자

HNT 하나허니문

허니문 주말상담회

매주 토요일 허니문 상담 받으세요!

Just Married

허니문 주말 상담회(매주 토요일)에서 드리는 특전!

event 01 현장 예약시 하나투어 **40만 마일리지** 제공 (커플 당) ※일부상품 제외

event 02 현장 예약시 **토스터기 &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1만원** 증정

본사 하나투어 본사 2층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길 41 하나투어빌딩 2층 (주)하나투어리스트

소개이벤트 결혼을 준비하시는 지인을 소개시켜주세요!

예약 성사시 소개시켜 주신 분께는 3만원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과 예약하신 커플께 하나투어리스트 3만원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중입니다 (허니문 예정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도 동일혜택 적용) 사전 온라인 신청 필수 http://me2.do/FegLcydp

커플 15만원 백화점상품권 증정!

몰디브 ＊아무쿠시 리조트 워터빌라 6일

3,382,000부터 (1인요금/선택관광/팁별도)

▶3월~6월 21일 매주 토, 일, 월요일 출발

한정특가!

푸껫 ＊하얏트 리젠시 오션뷰 풀빌라 6일

1,162,300부터 (1인요금/선택관광/팁별도)

▶3월~6월 매주 토, 일, 월요일 출발

피렌체에서 2시간 스냅촬영!

이태리(로마/피렌체/베니스) 8일

2,750,800부터 (1인요금/선택관광/팁별도)

▶3월~6월 매주 토, 일요일 출발

커플당 50만원 할인!

오아후 ＊쉐라톤 PK 6일/7일

2,312,900부터 (1인요금/선택관광/팁별도)

▶3월~10월 매주 토, 일, 월요일 출발

허니문 상담팀 02) 2127-1234